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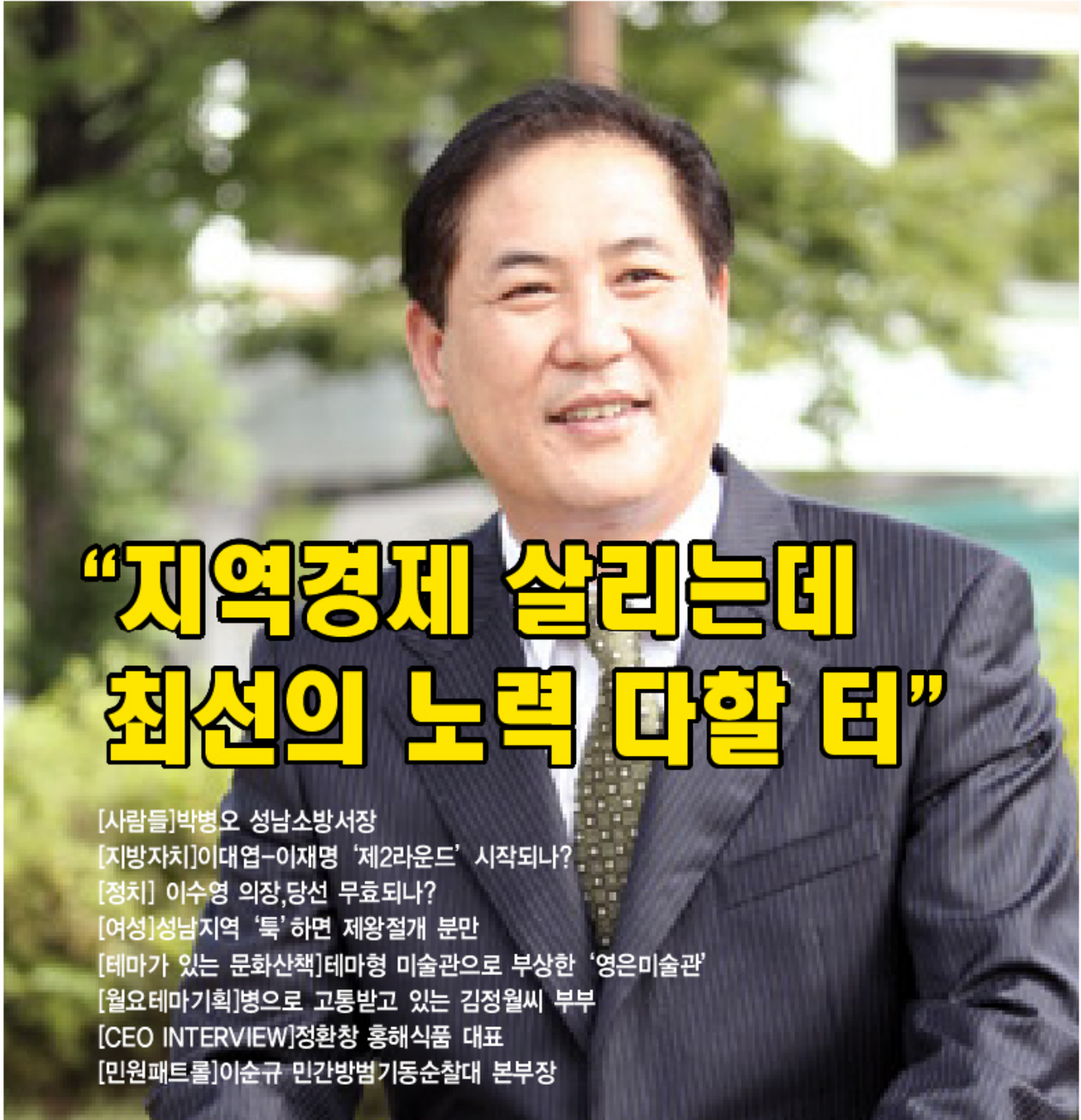
독자와 함께 호흡하는 -

뉴스데이

newsday.or.kr



제6호 | 발행일 : 2006. 9. 13 | 회장 : 김종균 | 발행·편집인 : 김광란 | 편집국장 : 오동희 | 기사제보·광고문의 031-721-9922 | 팩스 031-721-9921 www.newsdays.or.kr



“지역경제 살리는데 최선의 노력 다할 터”

[사람들]박병오 성남소방서장

[지방자치]이대엽-이재명 '제2라운드' 시작되나?

[정치] 이수영 의장,당선 무효되나?

[여성]성남지역 '특' 하면 제왕절개 분만

[테마가 있는 문화산책]테마형 미술관으로 부상한 '영은미술관'

[월요테마기획]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김정월씨 부부

[CEO INTERVIEW]정환창 흥해식품 대표

[민원패트롤]이순규 민간방범기동순찰대 본부장



인터넷 주소창에 **성남일보** 를 치세요

성남일보

snilbo.co.kr



고급호텔 분당차병원 여성케어센터입니다

친정엄마와 같은 편안함과 고품격 서비스로
여성과 소아의 모든것을 진료합니다.

- 산부인과 고위험 임신/예비 임신부/배경기/내시경 수술/소아청소년부인과
- 소아과 소아특수검사/미숙아/소아일례르기/비만 영양/소아간질/소아감사
- 시험관아기센터 습관성 유산/남성불임/시험관 수술
- 미용피부과 레이저수술/흉터전문/여드름·필링
- 미용성형외과 미용성형/보톡스/지방흡입/모발이식
- 한방과 부인과/소아과/비만 클리닉
- 산후관리센터 분야별 고품격 교육 프로그램/친환경적 첨단시설
- 리뉴바디센터 양·한방비만 클리닉/피부관리



문길만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지역경제 살리는데 최선의 노력 다할 터”

탁상행정 아닌 발로 뛰는 현장 의정 활동 전개



최근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행정타운 이전과 현 청사 활용방안 등 민생현안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들이 산재하고 있는 경제환경위원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지역경제 하락의 주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경제 중심에 재선의원인 문길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서 있다. 그는 지난 4년동안 지역의 최대현안 해결책과 영세민 돕기에 앞장서 왔고, 성남시의 최대 난제인 '주차장 건설'과 서민들의 한 축인 '육답방 양성화' 해결 등 내고장 숨은 일꾼으로 주목 받고 있다.

제5대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문길만(가선거구-신흥1,수진1.2)위원장이 주목 받는 이유는, 성남시가 시행중인 각종 공사현장을 직접 찾아 다니면서 꼼꼼히 점검해 보고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행정감사 등을 통해 문제점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지역 소외계층과 빈민세대, 경모당 실태 등을 파악, 지자체의 지원대책 등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 위원장은 현재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집행부를 견제하고 시민행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소속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배려하는 한편,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어 동료의원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도 신뢰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문 위원장은 서민들이 모여

사는 기존시기와는 생계를 위해 지어진 불법 육답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3년초부터 동료 시의원과 연합해 열린우리당 수정구 출신 김태년 의원과 지역민들의 오랜 숙원이던 수정중원구 육답방 양성화를 위한 한시적 법을 추진 끝에 지난해 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등 결실을 맺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

또한 기존시기까지 경제의 핵인 재래시장 활성을 위해 열린우리당 성남시 재래시장 육성 단장을 맡는 등 중앙시장과 성호시장의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의정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를 두고 위원장은 “주민들이 다시 한 번 성남시를 위해 일하라는 뜻으로 선출해 준 만큼 살아 숨쉬는 성남을 만들기 위해 부드러움과 함께 지역의 민원을 발로 뛰며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해결이 안되면 해결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문길만 위원장의 지역구는 '가' 선거구로 성남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신흥1동과 수진1, 2동이다. 여기에 신흥1동은 성남의 생성과정에서부터 현재까지 애환과 변천사를 간직한 주거와 상가가 공존하는 지역으로서 주민들의 생생한 생활상이 묻어나오는 곳이기도 하다. 이곳 출신인 문길만 의원은 주민과 함께 생활하며 주민들이 과연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물어주고 아픔을 함께했으

며, 20평 분양지의 좁은 골목에 주차난의 심각성을 알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 부지를 찾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 신흥1동 5542번지에 공용주차장이 건립함으로써 인근 주민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하다.

이뿐만 아니다. 지난 제4대에서도 성남시의회 경제 환경 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쾌적한 환경조성,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꽃길과 테마공원조성 등 친환경조성사업에 앞장서는 한편,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시장 및 처리요구45건, 건의36건, 자료요구 28건으로 총 109건을 요구하여 예산을 절감시키는데 중추적 역할을 한 바 있기도 하다.

이처럼 문 위원장은 “성남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은 물론, 이제 시작된 제5대 성남시의회가 연구하고 실천하는 의회로 거듭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재선이자 경제환경위원장으로 정해진 역할을 다 하겠다”며 당찬 포부를 밝히는 등 2006년도에도 주목을 끌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

한편, 문길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은 1958년생으로 지난 2002년에 당선되어 시의원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었으며, 현재 경원전문대학 경영정보학과에서 경제 흐름을 배우고 있는 만학도이다.

오익호 기자

문 위원장은 “성남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은 물론, 이제 시작된 제5대 성남시의회가 연구하고 실천하는 의회로 거듭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재선이자 경제환경위원장으로 정해진 역할을 다 하겠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프로필

- 경원전문대학 경영정보학과 재학중
- 성남시의회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전)
- 성남시의회 제4대 경제환경위원회 간사(전)
- 분당 청년회의소 회장
- 시민연대 환경365중앙회 부회장
- 열린우리당 재래시장 육성 단장
- 육답방 양성화 공동대표
- 성남시의회 제5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병호 성남소방서장

“설마하는 ‘안전 불감증’ 갖지 말아야”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실적 전국 3위 차지



최근 성남소방서가 2006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실적이 전국에서 3위를 차지해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지난해 9월 박병호 서장이 제19대 성남소방서장으로 취임하면서 강조했던 입성처럼 '질서와 화합, 그리고 단결'로 성남시민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힘으로 고품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했던 것이 3위를 차지한 그 근원인 것 같다는 게 소방대원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다.

따라서 10개월만에 큰 성과를 만든 박병호(54, 지방소방정) 서장을 만나 소감을 들어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았다.

▲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받은 소감은?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상은 저

에게 큰 영광이기도 하지만 작년 겨울철 기간 중 성남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히 일을 추진했던 우리 성남소방서 전 직원의 땀과 노력의 결과로 생각하며 모든 기쁨과 영광을 성남소방서 직원들에게 돌리고 싶습니다.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실적으로 행정부 장관 표창

이번 표창은 성남소방서의 큰 영광이며 자랑으로 소방방재청에서 시상식을 하는 것도 좋지만 수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수해민을 돕는 일이 최우선이라 생각합니다.

▲ 지난 겨울철 어떤 업무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까?

저는 취임 후 관내 화재취약지역을 최우선적으로 확인하여 화재위험요소를 제거 하는 등 재난사고 사전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성남소방서 직원들과 함께 재난발생 초기 인명구조 및 진압활동을 위한 도상훈련, 고가사다리차 등을 이용한 현지 적응훈련 등

체계적인 훈련 및 화재예방 활동 강화를 통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월동기를 맞이하여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3단계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집중 추진했습니다.

그 외에도 인기연예인 명예소방홍보대상 위촉, 외래강사 초빙특별교육, 에어매트 전담반 운영, 다중이용업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실시 등 많은 특수시책을 추진하게 된 점이 전국 소방관서 종합 평가때 높게 평가되었던 것 같습니다.

▲ 겨울철 안전 예방대책이 있다면?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4계절 소방안전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추석 대명절에 앞서 청소년 수련시설, 관광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공사장 등 위험요소를 찾아 위해요소를 제거하는 등의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어린이 및 청소년의 방학기간을 맞이하여 어린이 소방안전교실 운영, 긴급구조 119체력캠프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학기간 중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안전문화의식을 심어주고 위기대처 능력을 향상 시킨바 있습니다.

지난 3월26일 대왕저수지에서 구조대원 전원이 참석해 각종 수난사고 유형별 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하는 등 수난구조현장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 직원들의 복지향상과 사기증진을 위한 활동이 있다면?

매월 자랑스러운 소방공무원을 선정하여 포상과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소방공무원 선정은 전직원인 무기명용 1인 추천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된 직원은 동료 직원의 추천으로 선정되었기에 더욱 자랑스러워하며 업무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익호 기자

성남소방서는 ‘업그레이드’ 중

성남소방서는 지난 7월 ‘2006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이번 표창은 지난 겨울철 기간동안 전국 각 소방서에서 추진한 소방안전대책을 종합평가하여 선정하였으며, 성남소방서는 전국 3위를 차지하여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장과 표창현판을 수여받았다.

성남소방서는 겨울철 기간동안 119우정봉사단 창단, 119견인지원단 창단, 인기연예인 명예소방홍보대상 위촉, 외래강사 초빙특별교육, 에어매트 전담반 운영 등 많은 특수시책을 선정하여 추진하였고, 특히 대형화재 취약 대상의 특성에 맞는 소방안전대책을

수립하여 화재발생률을 감소시키는 등 소방안전대책 추진 실적이 우수하여 전국우수관서 종합평가시 우수한 성적으로 평가 받았다.

이번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우수기관 표창은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소방공무원이 특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소방방재청에서 표창을 수여하지

않고 일선 소방본부로 이첩되어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이 특별한 행사없이 간소하게 실시했다.

성남소방서 박병호 서장은 이번 표창을 계기로 보다 노력하여 성남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機能



理解



創造



解放

최상의 인테리어, 저렴한 책임시공

플러스건축은 사랑과 행복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공간만을 생각하며
 고객님의 모든 공간이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년간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하여
 차별화된 개성 강한 감각과 합리적이고 예술적인 디자인으로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어드립니다.
 고객여러분과의 약속을 소중히 생각하며 고객의 신뢰속에 커가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전문분야 | 아파트 인테리어 | 상가 인테리어 | 전문 사무실 시공 | 건축 · 설계

空間美學工作所 플러스건축

인테리어의 선구자 / 30년 전문시공 대표 이상훈 Mobile : 011-9964-4298

이수영 성남시의회, 당선 무효되나?

회계책임자 W모씨,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제공 혐의 성남 수정구 선거관리위원회, 검찰에 고발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4선에 성공한 이수영 성남시의회 의장의 회계책임자인 W모(52. 여)씨가 자원봉사자인 J모(44. 여)씨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 수정구선거관리위원회가 W모씨와 J모씨를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그 결

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수정구선관위는 최근 관련자 5명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며 이중 금품을 제공한 W모씨와 금품을 수수한 J모씨 등의 혐의를 파악해 검찰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 했다.

이에따라 회계책임자의 행태에 따라 이수영 의장에 대한 당선유지 또는 당선무효가 판가를 날 것으로 보여,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수영 의장의 회계책임자 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직선거법 제135조 규정에 의한 것으로 동 법에 의하면 보상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금품 또는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수영 의장의 회계 책임자였던 W모씨는 본격적인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당시 이수영 후보 사무소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비용으로 190만원을 J모씨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선관위 조사결과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회계책임자인 W모씨는 "직원이다 보니 선관위에 질의해서 직원 월급 및 전화요금, 전기요금을 선거의 자금으로 지불할 수 있다고 해서 선거 통장을 통해 선거의 자금으로 신고한 바이다"며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대응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품을 받은 J모씨는 "이수영 후보 사무소에서 일한 댓가로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 수정구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해 일한 댓가로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만큼 고발이 불가피하다"며 고발이유를 밝혔다.

오익호 기자

성남시의회 '호화판' 의정연수회 '빈축'

한끼 4만원, 2박3일동안 4천여만원 경비 사용



'저녁 한 끼 4만원, 하루밤 호텔 숙박료 14만원...'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제5대 의회가 개원한 지 얼마되지 않아 지역경제 활성화는 뒷전인 채 성남을 벗어나 의지에서 호화판 의정연수회를 가져 빈축을 사고 있다.

더욱이 의원연수 일정 중 대부분이 문화 탐방이나 체육행사 등 관광성 일색이어서 의정연수회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은 물론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성남시의회(의장·이수영)와 주민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한국산업기술원에

의뢰, 6일부터 8일까지 2박3일간 일정으로 강원도 삼척시에서 의원 36명과 사무국 직원 등 모두 60명을 대상으로 '2차 의원 의정연수회'를 가졌다.

시의회는 제5대 지방의회에 진출한 의원들이 의정연수회를 통해 의회 운영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의정수행 능력 제고는 물론 의원간 화합도모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의정연수회를 위해 들어간 예산과 세부적인 연수일정표를 살펴보면 시의회측의 실행과는 상당부분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우선 이번 의정연수회에 들어간 소요 예산은 한국산업기술원 위탁교육비 960여만원과 기타 경비 2천400여만원, 의정연수복 구입 등을 합하면 모두 4천여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의원들은 각각 2만원과 4만원 짜리 점심과 저녁을 먹고 하루 비용만 14만원 짜리 호텔에서 잠을 자는 등 경기 불황 지속으로 고통받는 성남지역 서민들의 경제 상황을 외면한 호화판

연수라는 논쟁을 받고 있다.

또한 2박3일간의 연수기간에서 교육 시간은 행정사무감사·조사 실전 사례 및 예산·결산안 심사기법 등을 포함해 고작 11시간에 불과한 반면 나머지는 은천 관광이나 동굴 탐방 및 체육행사로 짜여졌던 것으로 드러나 의정연수회의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주민 김모(48·자영업·수정구 태평4동)씨는 "집행부가 시민 협세를 잘 쓰는지 감시하랬더니 시의원 자신들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 호화판 의정연수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을 보니까 막힐 노릇일 뿐"이라면서 "새로 시의회가 구성돼 5대부터는 뭔가 변할 줄로 기대했는데 '그 나물에 그 밥'이란 말처럼 이전보다 나아진게 별로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18일 초선의원들을 대상으로 분당구 정자동 킨스타워 대강당에서 회의운영을 비롯해 의안처리 실무 등 의정 활동에 필요한 기본 내용을 중심으로 '1차 의정연수'를 실시한 바 있다.

편집부

이대엽-이재명 '제2전쟁' 시작되나?

이대엽 시장, 명예훼손으로 고소 이재명 변호사 '선거법 위반' 으로 고발



한나라당 이대엽 현 시장과 열린우리당 이재명 전 후보가 총성없는 전쟁을 치룬지 3개월만에, 이대엽 시장의 명예훼손 고소와 이재명 변호사의 '선거법위반혐의' 고발로 또 다시 혈전을 치를 전망이다. 이대엽 성남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6월 22일에 열린우리당 이재명 전 후보를 비롯해 선거대책공동본부장인 김모씨 그리고 지역 인터넷 신문기자인 김모씨 등 3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출마를 놓고 한나라당 이대엽 현 시장과 열린우리당 이재명 전 후보가 총성없는 전쟁을 치룬지 3개월만에, 이대엽 시장의 명예훼손 고소와 이재명 변호사의 '선거법위반혐의' 고발로 또 다시 혈전을 치를 전망이다.

이대엽 성남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본부장 김모씨와 공모하여 언론을 통해 출생지 및 학력, 종교문제, 공군 조종사를 사칭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 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또한 선거 막바지인 지난 5월 27일 오전 10시경에 상대원동 소재 모에어로빅을 방문, 연설을 통해 "이대엽 시장후보의 언론 등 향간에 떠도는 소문이 사실

이와 함께 모 지역인터넷신문 김모기자에 대해서도 "다른 후보들은 배제한 채, 인터넷 신문에 '이대엽 시장후보의 두 얼굴'이라는 기사를 통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것은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함께 고소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전 후보는 이대엽 시장이 고소한 내용을 놓고 황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대엽 현 시장의 19가지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24일 고발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

그러면서 고소건에 대해 이대엽 시장이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무고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 이 두 사람의 법정공방을 피할수 없는 한판 전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재명 변호사는 이대엽 시장의 고소한 내용을 두고 "이대엽 시장이 고소한 것처럼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으며, 선거당시 유권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에 대해 자료를 근거로 시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알권리를 위해 밝힌 것 뿐"이라며 이해할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특히 고소인이 주장하는 5월 27일 오전 10시경이면 초하루라 법회에 참석하고 있는 기간대이고, 그 시간에 법회에 참석한 신도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다"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오익호 기자

경쟁 상대인 성남시장 후보 출신, 결국 법정에서 또 다른 싸움으로 번질 듯

6월 22일에 열린우리당 이재명 전 후보를 비롯해 선거대책공동본부장인 김모씨, 그리고 지역 인터넷 신문기자인 김모씨 등 3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의 경우,

로 확인되고 있고, 공천탈락자 이모씨가 검찰수사에서 모든 전모를 밝혀 수입내 사실로 발표될 것"이라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는 사실과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누리세요!

신협가족의 다양한 혜택

이자율 높은 **비과세**로 수익 좋고
24시간 열린 **전자금융서비스**로 편리하고
저렴하고 알찬 **신협공제**로 보장받는다!

성공사업의 든든한 동반자 **신협!!**
신협 단말기만의 특별한서비스

카드결제기 하나로 모든 금융거래 O.K!
계좌거래내역 인쇄, 계좌잔액조회, 계좌이체등
신협단말기에서 모든금융거래 O.K.!!



난, 똑똑한 **新**경제인!
신협가족이다

태평본점 : 031-755-4968
태평3동 3659 낙원스카이뷰 상가 101호
수진점 : 031-758-1797
신흥점 : 031-757-8855

중동 집창촌, 또 다시 활성화 되나?

최근 영업활동 재개... 인근 주민들 우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지 2년이 되어간다. 그러나 곳곳에 부작용에 따른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의 대표적인 집창촌인 중원구 중동이 서서히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성남시 집창촌인 중동은 1997년도 서울에서 미아리, 청량리, 천호동 등 대표적인 유흥업소들을 단속하자, 이들 업주들이 중동지역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으면서, 한때 130여개까지 늘어날 정도로 성황을 이룰때가 있었다.

이로 인해 중동 집창촌이 성황을 이룰수록 인근 주민들과 자식을 키우는 학부모들은 불안감도 높아질 수 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인근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됐기 때문이다. 특히 집창촌 골목으로 통해 등하교가 불가피한 구조 속에서 학부모들의 속앓이는 커질 수 밖에 없다.

성매매특별법으로 된서리 맞은 중동 2004년 9월 성매매특별법이 강력하게 시행하자, 이곳 집창촌 대부분이 문을

닫았다. 이로 인해 주변 300여개의 여관들도 타격을 입고 경매로 넘어가거나 매물이 하루가 멀다하고 나왔다. 이를 두고 성남의 대표적인 중동 집창촌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112개 업종 중 56개소가 휴업에 따라 350여명의 직업여성들이 이곳 중동지역을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이후 계속해서 빠져나가 급기야는 30여개업소까지 줄어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업소와 나머지 직업여성들이 빠져나가지 못한것은 그야말로 오고갈데 없는 여성들만 남았지만 사실상 영업은 못했다는 것이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단속이 느슨해지고 판교신도시 보상이 마무리되면서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최근 60여개소로 유흥업소가 늘어났고, 그동안 휴업했던 나머지 업소들도 1종 유흥주점의 면허를 반납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기회가 있으며 다시 영업을 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한탄이다.

중동에 사는 이모(42.남)씨는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예전에는 두 딸이 집창촌 골목을 통해 학교를 가고 오고해 항상 불안에 떨어야 했는데 성매매특별법 이후 단속으로 인해 영업을 하지 않아 한동안 편찮았는데, 다시 활성화 되어서는 안된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집창촌 중동, 재개발 논의 한창중

성매매특별법 이후 급격히 집창촌이 들어들자, 이번 기회에 재개발을 통해 중동지역을 새롭게 바꾸고 이미지 개선은 물론, 청소년들에게 유해환경을 제거하자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미 주민들이 재개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개발기본계획을 내놓는 등 구체화 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지역은 우리가 만든다라는 명분아래 주민 스스로 재개발을 통해 지역 상권과 집창촌을 없애는 것은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하고, 중심상권을 통해 지역발전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중동지역을 성남 구도심에 주거, 업무, 상업, 문화가 있는 최고의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오익호 기자

● ● ●
성매매특별법 이후 급격히 집창촌이 들어들자, 이번 기회에 재개발을 통해 중동지역을 새롭게 바꾸고 이미지 개선은 물론, 청소년들에게 유해환경을 제거하자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뉴스데이 광고문의
031)721-9922

국가정보원 신고전화 111번
대한민국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주는 번호입니다.

간첩 · 테러 · 마약 · 산업스파이 신고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1번

□ 국가정보원(www.nis.go.kr)
· 성남안보상담센터 :
111번 · 031-733-1113 / 722-2112

□ 상급내역
· 간첩선 : 최고 1억 5천만원
· 간첩 : 최고 1억원

□ 국가정보원 안보상담센터는 아래와 같은 업무도 병행합니다.
· 안보교육용 VTR 테이프 지원
· 안보감사 지원
· 판문점 견학을 원하는 단체들의 신청 접수

111

nis
National Intelligence
동서양 연결의 내일을 여는
국가정보원



바닷가재특별판매단체인 장군수산
씨푸드 장군

바닷가재 퓨전요리

4인 70,000원



※ 활어회 서비스



가족과 실속있게 즐기는 바닷가재 파티!

고품격 펜션형 바닷가재 퓨전레스토랑 장군수산
칠리소스에 녹아드는 바닷가재 매니아의 요람



숲과 어우러진 펜션형 통나무집에서 맛보는 캐나다산 랍스타와 러시아 킹크랩.
4인 7만원의 저렴한 바닷가재 퓨전요리로 연말연시를 가족과 함께 맛의 향연을 즐기십시오.
바닷가재 요리의 진수를 맛보는 장군수산은 광주·분당·죽전의 유일한 명소입니다.



랍스타, 짬 구이, 칠리, 버터요리, 바닷가재 퓨전요리(13가지 코스요리, 디저트 제공)
4인 70,000원



씨푸드 장군
랍스타 전문점

예약문의 031) 718-1231

통나무로 완비
주차·연회시설 완비

사업승인 준비로 구슬땀 흘리는 '이종화 제일아파트재건축조합장'

“조합원이 날개를 달아 주지 않으면 조합은 날지 못한다”



성남 기존시가지에 재개발, 재건축 열풍이 불고 있다. 실제로 성남에는 21개 단지 7천5백여세대가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성남시에 따르면 4개 아파트, 연립주택 단지가 재건축 공사를 끝내고 이미 준공한 데 이어 6개 단지가 재건축 공사를 벌이고 있고 12개 단지가 사업시행허가 또는 조합인가, 구조안전진단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지역의 경우 강남, 송파, 분당, 판교 등에 인접한 지리적 장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가구수가 100가구 미만의 소형단지와 기존 용적률이 높고 성남공항공도제한 문제로 타 지역의 재건축단지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단점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건축 규제 강화라는 악재까지 겹쳐 사업추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옥주들이 나서 재건축조합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사업시행의 투명성으로 인해 성남시 건축심의를 통과해 사업시행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이종화 제일아파트 재건축조합장을 통해 조합의 방향에 대해 들어 보았다.

“제일 아파트조합은 언뜻 보면 사업 추진 속도가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묵묵히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모든 의사결정에 반영하겠다는 조합의 의지 표현이다. 제일아파트 조합을 이끌고 있는 이종화 조합장은 조합의 가장 큰 원칙은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끝까지 듣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이를 위해 조합에서는 수시로 임대의원 및 조합원 회의를 거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조합이 조합원들의 합의를 전제로 일을 추진하는 것은 ‘조합원이 날개를 달아주지 않으면 결코 조합이 날지 못한다’는 이 조합장의 평소 철학이 담겨있다.

조합 추진 상황에 대해 이 조합장은 지난 2003년 8월 안전진단 D급 판정을 받은 후 재건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현재에는 1백33세대(아파트 1백32세대, 상가 1세대)를 1:1로 재건축해 25평형 132세대 및 상가 1동으로 신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6월 14일에는 성남시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현재는 사업시행인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처음에 재건축을 추진할 당시에는 준공기 고도제한 및 신축 용적률 200%

로 적용돼 사업성 부문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조합이 순항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조합장은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일반 분양후 후분양제 적용,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기반시설부담금,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등 규제책만 심해지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장려책은 없다”며 정부 정책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특히 재건축시 임대주택을 규정한 법에 대해 이 조합장은 “우리 조합의 경우 1:1 재건축으로 세대수의 증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할당 하는 것은 기존 조합원이 입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기현상을 초래한다”며 정책의 문제점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합은 5세대의 임대아파트 공급을 위해 조합원들과 논의 끝에 현금 청산을 원하는 세대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선에서 합의를 도출해 법의 맹점을 보완했다.

그러나 이 조합장의 고민은 다른데 있다. 향후 사업시행 인가후 인근 단독주택의 재건축 참여 여부를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서로 힘이 되

는 방향에서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과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은 지난해 7월 성남시로부터 인접 주택이 100% 찬성하면 재건축을 함께 추진해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받아 놓은 상태다. 따라서 이 조합장은 인근 주택 36세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주민들이 100% 찬성하면 아파트와 단독주택 단지를 통합해 보다 큰 단지의 재건축을 추진할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이 조합장은 하대원동 111-7번지 인근은 정비구역기본계획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구역재개발을 추진할 수 없는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제일아파트 조합이 순항할 경우 조합원들은 통상적인 의미의 제테크보다는 주거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재건축이 완료됐을 경우에는 현재 보다 생활여건 및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합장은 “재건축 사업은 분면 사업인 만큼 집과 땅에 있어 모든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업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보를 공개해 조합원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조합이 되는 것이 꿈”이라고 소박한 희망을 내비쳤다.



제일아파트 사업시행 전·후 조감도

류수남 칼럼

“시의회는 손등만 보고 바닥은 안봄니까”

성남시의회가 5대들어 첫 번째로 지난 달 24일부터 31일까지 일주일 동안 각 상임위원별로 시책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집행부로부터 받았다.

이번 5대 의회는 많은 새내기 의원들의 진출로 물갈이가 되면서 이들 의원들의 패기와 민첩성과 의욕이 언제까지 같지는 모르지만 당장은 돋보이고 있다.

이런 모습이 4년 임기 내내 계속되기를 기대하며 36명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몇 가지 당부를 하고자 한다.

이번 138회 임시회의도 지난4.3.2대 때와 같이 반복되는 것이 있다면 길잡이를 해야 할 재선 이상 의원들의 활동상이 부족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또 의회가 열리는 날에는 필요 이상의 공무원들이 의회로 모인다.

이렇다보니 대기 장소가 없어 복도에서 서성대는 이들의 모습도 마치 탐복자들의 모습과 같이 좌불안석이다. 그리고 각 구청의 구청은 마비가 돼 구청을 찾았던 민원인들은 헛 걸음을 해야 한다.

또 일부의원들은 자기의 책무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런가하면 일부는 속기록을 장식(?)하기 위한 발언들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는 수준을 의심케 하는 의정을 하고 있다. 36명 의원 모두는 시민들이 낸 월세지킴이의 책무를 안

고 의회에 진출했다.

감시와 견제가 무엇을 뜻 하는가? 단돈 10원이라도 불필요하게 쓰이거나 緩急과先後가 구별이 안 되는 시정을 볼 때 브레이크와 분직이 역할을 하기 위해 시민들의 대표로 의회에 들어온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헬세가 낭비되는 현장을 찾는데 역주를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헬세가 새나가는 기자실을 왜 2곳씩이나 같은 건물 내에 두게 하려는지 알 수가 없다. 필자는 늦은 감은 있지만 브리핑 룸을 폐쇄한 이대엽 시장의 용단에 박수를 보낸다는 논조를 편 바 있다.

이 논조에 성남시의 대변자나며 이름도 못 밝히는 비아냥의 댓글을 보았다. 필자는 지금도 한 건물 내에 두 곳의 기자실을 두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생각과 브리핑 룸을 폐쇄했다고 언론이 탄압됐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또 시민들의 알권리 행사를 못한다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

할 일이 많은 의회가 이런 것을 문제삼는 것은 대도를 버리는 것길 의정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 예로 열린 우리당 소속의원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브리핑 룸 폐쇄를 놓고 송영수 공보담당관을 다그치는 것을 보고 실망을 했다.

진정한 지역일꾼으로 시장의 감시와 견제의 임무를 느끼는 의회라면 이대엽 시장에게 찬사를 보내야 한다.

찬사가 싫거나 사안이 중요해서 문제를 삼아 활을 쏘려면 과녁(眞革)을 향해 쏘야 한다. 이런 것이 일개 과장의 힘으로 될 일이라고 생각하나. 그렇다면 이는 수준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공직사회가 실무자들이 소신껏 행정을 할 수 있는 풍토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권한과 소신도 없지만 그렇게 하려는 공직자들도 없다. 착각하지 말기 바란다.

또 이대엽 시장과 최홍철 부시장께서는 이번 문제에 합구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누군가는 소신 있는 해명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번 문제는 시의 방침이라면 두말할 나위가 있지 않은가.

또 송 과장이 임의로 했다 해도 이는 책임자들이 해명과 소신을 밝혀야 되는 것 아닌가?

시정책임자가 합구를 하고 있으면 2,500공직자들이 누구를 믿고 일을 한단 말인가. 설사 자기 부하들이 잘못을 했다 해도 용서를 바라는 해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필자는 공무원이 아니어서 짧은 모르나 성남시의 시정 책임자가 있다면 한마디 짚은 해야 한다.

조직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보듬어 줄 줄 아는 상사를 받들고 따르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이대엽 시장과 최홍철 부시장께서는 이번 문제에 합구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누군가는 소신 있는 해명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번 문제는 시의 방침이라면 두말할 나위가 없지 않은가. 또 송 과장이 임의로 했다 해도 이는 책임자들이 해명과 소신을 밝혀야 되는 것 아닌가? 시정 책임자가 합구를 하고 있으면 2,500 공직자들이 누구를 믿고 일을 한단 말인가. 설사 자기 부하들이 잘못을 했다 해도 용서를 바라는 해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실속형1호

재래식전장김 40g 2

실속형3호

1 구성 | 식탁김 20g 20/돌전장김 20g 3
재래전장김 40g 3

명품감태혼합세트

명품참기름3호

1 구성 | 참기름 320ml 2병/들기름 320ml 1병
참기름 160ml 1병/들기름 160ml 1병

추석맞이 소문난 삼부자 알찬자연 선물세트

순서	구분	구분	특판가
1	실속형	실속1호	13,200원
2	실속형	실속2호	18,700원
3	실속형	실속3호	22,000원
4	실속형	실속4호	33,000원
5	실속형	실속5호	48,000원
6	실속형	실속특1호	75,000원
7	실속형	실속특2호	64,000원
8	실속형	주문A,B호	10,000원이하
9	실속형	주문C호	13,000원이하
10	고급형	고급1호	21,000원
11	고급형	고급2호	28,000원
12	고급형	고급3호	31,500원
13	고급형	고급4호	33,000원
14	고급형	고급5호	38,000원
15	명품건어물	감태세트	24,500원
16	명품건어물	감태혼합세트	24,500원
17	명품참기름	참기름1호	15,000원
18	명품참기름	참기름2호	20,000원
19	명품참기름	참기름3호	31,500원
20	상주특산물	꽃감2kg	30,000원

www.sambujakim.com
구입처: 흥해식품
031.743.3232

제왕절개 분만을 높은 병원 명단공개

성남지역 '특' 하면 제왕절개 분만

제왕절개 분만을 높은 병원 명단공개... 10명중 5명이 제왕절개로 태어나

우리나라의 제왕절개분만율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WHO 권고율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성남지역이 전국 제왕절개 분만율보다 높은 40.2%로 나타났다.

이같은 평가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5년 상반기 중 분만건수가 50건 이상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2005년 상반기 제왕절개 분만율 평가] 결과, 성남지역 15곳중 무려 7곳이 제왕절개 분만율(47%)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수치는 전국 제왕절개분만율인 37.5%보다 높고,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율인 5~15%를 크게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적절하게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제왕절개 분만율만 보면 ▲2001년 40.5%를 시작으로 ▲2004년 37.7%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2004년 미국 29.1% ▲2000년 스웨덴 15.4% ▲2002년 영국 22.0% ▲2000년 네덜란드 11.7% ▲2000년 유럽 전체 15.7% 등의 외국과 비교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와함께 분당지역을 살펴보면 예측된 범위보다 제왕절개 분만을 많이 실시한 병원 및 의원으로는 ▲고운빛 산부인과 의원 272건중 38.6%(제왕절개 예상치 32.2%) ▲분당 제생병원 60건중 53.3%(예상치 44.3%) ▲분당 차병원 773건중 48%(예상치 46%)를 차지

해 제왕절개 분만이 높은 병원 및 의원으로 기록됐고, 중원구에서는 ▲박춘원 산부인과 의원이 87건중 40.2%(예상치 33.4%)로 높은 병원으로 드러났다.

수정구는 ▲곽생로 산부인과병원이 988건중 50.3%(제왕절개 예상치 44.9%) ▲정다운 산부인과 의원 역시 131건중 48.1%(예상치 45%)의 제왕절개 분만율을 보였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제왕절개분만율이 낮은 병원도 있다. 다시 말해 대부분 자연분만을 유도하고 있는 병원 및 의원이다. ▲분당서울대병원은 440건중 40.9%(제왕절개 예상치 48.3%) ▲분당 제일산부인과 소아과의원이 858건중 29.5%(예상치 38.4%) ▲연세필 산부인과 의원이 353건중 25.5%(예상치 50.5%) ▲잠 산부인과 소아과의원이 405건중 19.8%(예상치 41.3%)로 낮은 제왕절개 분만율을 보였다.

이밖에도 분당구의 메디파크산부인과 의원과 수정구의 연세프라임 산부인과 의원, 제이스 산부인과 의원이 보통 등급을 받았고, 중원구 송계승 산부인과 의원 역시 제왕절개 분만율이 보통을 받았다.

한편, 공개내용은 기관별 제왕절개분만율 등급(위험도 보정 후 낮음·보통·높음의 3등급으로 구분)과 분만건수를 제공하며, 기관별 홈페이지에 들어가 상세 정보를 클릭하면 해당 기관의 단순 제왕절개분만율과 예측되는 제왕

절개분만율 범위를 동시에 볼 수 있다.

또한 이번 평가는 의료 기관별로 고령 산모, 출혈 등 산모의 9가지 위험요인을 반영한 뒤 실제 제왕절개율이 예측범위보다 높으면 '높음', 범위 내에 있으면 '보통', 범위보다 낮으면 '낮음' 등 3등급으로 분류했다.

9가지 위험요인중 산모측 요인으로는

고령 산모(35세이상), 당뇨, 전자간증 및 자간증(고혈압 포함), 태반문제, 출혈, 암 등이며, 태아측 요인으로는 다태아, 이상태위, 그리고 제왕절개 기왕력이 있다.

오익호 기자

PHOTO 찰칵! 가을내음나는 소리



◆ 탄천에 나타난 허수아비가 가을이 왔음을 실감케 한다.

수진역 2분, 인근 9개 학교, 유흥상권이 만난 트리플 프리미엄!

신동아 파밀리에 상가 분양·임대



탁월한 입지, 저렴한 분양가, 브랜드 신뢰도까지 시작부터 특별한 투자, 신동아 파밀리에 상가를 주목해 주십시오

신동아건설 Tel.031)753-9999

'올바른 여행사'를 선택하셔야 '즐거운 여행'이 됩니다



 **금강산닷컴**
www.e-geumgangsan.com

秋 **금강산**

산이 붉게 물드는 곳...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48 혜영빌딩 8층
TEL : (02) 739-1090-2 / FAX : (02) 739-3221-2

그랑닷컴과 함께하는
특별한 세계 여행!

NO. 1

자유여행, 패키지여행, 여권·비자대행 등 여행에 관한 모든것을 만날수 있는 곳.

 **그랑닷컴**
그랑닷컴 grang.com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47-2 한성빌딩 10층
TEL : (02)754-4901-2 / FAX : (02)754-4903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김정월 씨 부부'

“어떻게든 아내 병을 고쳤으면 좋겠어요”

성남일보(주)는 한국언론재단의 지원으로 '성남희망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게재되는 월요테마기획은 (주)성남일보(회장 김종권)와 사단법인 한국참사랑복지회(이사장 김광배)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성남일보가 지역신문으로는 최초로 운영에 들어간 성남희망프로젝트는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어 지역 노인복지의 실태를 취재해 독자들에게 전하고 독자들은 어려운 어르신들을 간접적으로 도울수 있는 장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기획했습니다.

특히 이번엔 추진되는 '성남희망프로젝트'는 한국언론재단의 지원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월요테마 기획 취재는 이나래 기자가 취재를 담당하게 됩니다.

1년간 진행되는 성남희망프로젝트는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보고서를 통해 지역노인복지의 대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들도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조그마한 힘이 되어 주기 위해 마련한 성남희망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편집자 주]



김정월 할머니의 병을 고치는것이 유일한 소원이라는 부부

자고로 옛부터 큰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다. 오늘 만나 본 김정월 할머니도 마찬가지의 예였다. 자궁암 진단을 받으면서 단란했던 노부부의 일상은 급속도로 파쇄해 져고 평소에도 교류가 없던 자식들과는 일년에 한 번 얼굴 보기도 어려워졌다.

인터뷰를 한다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온 할머니와 할아버지께 가장 먼저 드린 질문은 역시 암에 관한 것이었다. “2년 반이라는 세월 동안 계속 약을 먹어왔는데, 의사가 딱 끊으니까.” 할아버지의 대답에 할머니의 험스한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다.

“의사가 그냥 진통제를 주는 줄로만 알았지. 근데 몇 달 전에 그게 마약성분이 있는지는 몰랐지. 근데 몇 달 전에 그게 마약이라 먹으면 안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2년 반이라는 세월을 투약 했으니까 시간을 두고 줄였으면 괜찮을텐데, 의사 자신도 이거 너무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걸 알고 딱 끊어버린거야. 아파서 잠도 못자요.”

할아버지의 설명을 앞에서 묵묵히 듣고만 있던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진통제에 길들여져 있던 몸을 진통제 없이 병마와 싸우려니 하루하루 얼마나 큰 고통을 견뎌내야 했을까. 2년 반의 투병기간에 지쳐버린 할머니는 소리 죽여, 하지만 끊임없이 눈물을 쏟아내셨

다. 그리고 그런 할머니를 바라보는 할아버지 눈에도 눈물이 그렇그렇 맺혔다.

“참 남한테 욕 안듣고 성남에서 오래 살았는데, 집사람이 이렇게 되니까 할아버지가 성남에서 공무원으로 30년을 재직해오면서 웬만큼 기반을 갖추고 주변에 인맥도 많았다. 하지만 할머니의 병마는 그 모든 것을 앗아가 버렸다.

“하루에 열두번도 더 죽고 싶어. 옛날에 다 나한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네, 내가 지금 가진게 없으니까. 와서 한 번씩 형 뉘 먹고싶은 거 없소 하는 건 고맙지만 이게 이년 반쯤 되니까 볼 낫도 없고...” 해병대를 거쳐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평생을 자부심으로 살아오신 할아버지에게 이러한 상황은 너무나 힘겨워 보였다.

현재 두 노부부는 특별한 수입이 없다. 할아버지가 부동산에 나가시는 것으로 근근히 생활해 간다고는 하지만 그것 또한 신통치는 않아 한달에 35만원 하는 방세도 몇 개월째 밀려있는 상태.

“며칠 전에 광주 갑현동 산골짜기에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줄테니까 살아보겠냐고 해서 가봤는데 다 썩었더라” 하시는 할아버지. 컨테이너 박스는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다던데 어떻게 사시려고 그러시냐고 묻자 할아버지는 “이제껏 남한테 10원짜리 하나 피해주는 일 없었는데 그러지 말고. (차라리 컨테이너 박

스에 살겠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자식이 있어서 기초수급자 지정이 안되는 상황이란다. “아들 셋이 있는데 둘은 어디 사는지도 알아. 하나는 연락이 아예 없고. 그런데 그것도 이해가 가. 많이 많은 수입에 자식들 들씩 셋씩 넣고 살면서 가정 꾸려가는데 도와줄레니까. 우리는 이제 둘이 살다가 한 날 한 시에 죽자 이것 밖에 없어요.”

“매일 침대에 들어 누워서 죽자고 그래. 그런데 어느 날 자다가 (할머니) 일어났어요. 화장실에 간 줄 알고 화장실에 갔는데 나오니까 이쪽 방에도 없고, 불을 켜고 보니 작은 방에 들어가서 목을 뺏더라고. 삼맛이 없어”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그때까지 소리 없이 흘러오던 눈물을 왈카 터뜨리셨다. 죽기로 작정하고 목을 뺐 할머니나, 그 할머니를 한 밤중에 끌어내린 할아버지나 그 마음이 오죽했을까. 할머니는 오죽하면 생목숨을 끊을 생각을 하셨을까 하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가슴이 메어왔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연신 할머니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계셨다 “힘을 내고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특별하고 일어나서 남한테 좋은 일 좀 하자고. 당신만 특목 털고 일어나면 내가 힘 얻는 건 아무 것도 아니야. 사람들 말대로 그렇게 이기면 좋은 날이 돌아와. 밝은 날을 보고 죽어야지” 할아버지는 인터뷰 말미에 할머니의 손을 꼭꼭 잡고 조근조근 속삭이듯 말씀하셨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힘이 되고,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힘이 될 수 있기에 두 노부부의 삶은 아직 희망이 있다. 하지만 그 미약한 희망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몫이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같은 두 내외가 예전처럼 다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것. 그 작은 정성이 노부부의 눈물을 닦아내고, 할머니의 미소를 되찾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나래 기자

■ 후원 : 예금주 한국참사랑복지회
 농협 172-01-251420
 우리은행 302-228650-01-001
 하나은행 498-910003-51205

■ 문의 : 참사랑복지회
 031)747-2886 차순희 팀장

테마형 미술관으로 부상한 '영은미술관'

미술전시회 보고 체험 학습까지 한 자리서 'OK'



직장인들의 주 5일제와 학생들의 놀토(노는 토요일)가 정착되면서 가족들의 관심도가 아이들을 위한 생태교육과 휴식문화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쉬는 날 집에만 틀어박혀 있기는 아쉽고 멀리 나갔다 오기는 피곤할 것 같은 주말,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찾아주기 위해 뉴스데이 | 성남일보가 테마가 있는 곳을 금요테마로 정하고 자세하게 정보를 소개할 계획이다. 따라서 근교에 방문할 만한 곳들을 미리 찾아내 독자들이 편안하고 유익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게재할 예정이다. 독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 이번에는 광주 시에 위치한 '영은미술관'을 찾았다.

[편집자 주]

광주 영은미술관이 진행하고 있는 미술체험프로그램이 인기다. 주말을 맞은 학부모와 어린이들이 함께 미술관을 찾아 학부모들은 작품을 관람하고 어린이들은 체험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어 일석 이조라는 평이다.

성남에서 자가용으로는 20여분, 대중교통으로 40여분이면 갈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온가족이 함께 주말 미술 체험에 드라이브까지 즐길 수 있는 영은미술관으로 지금 떠나보자.

광주 시내에서 가까운 자연림에 아담하게 자리한 영은미술관은 지난 2000년 11월 개관한 현대 미술관으로, 창작스튜디오를 겸비해 작가들의 문화활동을 돕고 있다.

어린이들이 참가하는 문화체험행사는 바로 이 작가들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영은미술관이 지향하는 '살아있는 미술'을 실현하는 한 방법인 셈이다. 작가와 작가, 작가와 대중이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미술관 자체가 살아있는 창작의 현장이 되고 참여하는 대중은 살아있는 미술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살아있는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문화체험행사는 관화체험, 염색체험, 도예체험의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어린이를 중심으로 진행되긴 하지만 어른들이 함께 체험을 해도 손색이 없다. 오히려 어른들이 더욱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으니 온 가족이 각자 한 작품씩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듯 싶다.

가장 인기있는 체험은 '관화체험'. 사실 체험프로그램이 시작된 것도 이 관화체험의 인기 덕분이다. 처음 시작했던 아크릴관화 체험의 인기가 좋아 하나씩 프로그램을 추가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 영

은미술관 측의 설명이다.

현재 진행되는 관화체험은 총 세 가지다. 아크릴관화의 일종인 일반관화와 호박관화, 그리고 와이어관화. 일반관화는 25X20cm의 아크릴판에 니들(needle)로 그림을 새긴 후 프레스기로 찍어낸다. 호박관화는 투명한 호박액자에 사진을 대고 하는 관화작업. 두 가지 모두 어린이들이 체험하기에 어렵지 않아 인기가 좋다.

다른 한 가지는 와이어관화. 와이어관화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작가가 특색을 냈을만큼 새로운 표현기법이라고 영은미술관측은 설명한다. 부드러운 철사를 구부려 원하는 모양의 틀을 만들면 훌륭한 관화가 된다. 짙은 관화작품은 벽에 걸면 훌륭한 액자가 된다고 영은미술관 큐레이터가 귀띔할 정도.

과화, 소목, 칠, 밤, 쪽 등의 천연 염료를 사용하여 손수건이나 티셔츠를 염색하는 '염색체험'도 인기 프로그램이다. 아이들이 직접 빨거나 주무르는 과정을 통해 염료가 천으로 배어들어가는 것을 직접 보기 때문에 무척 신기해한다고.

또 묶는 방법을 달리하면 서로 다른 모양으로 염색할 수 있다는 것도 무척 흥미롭다. 염색 후 각자의 작품을 비교해 보는 것도 쓸쓸한 재미를 느끼게 한다. 다만 30~40여분간 꾸준히 주물러줘야 색깔이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저학년 어린이들의 경우 종종 싫증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도예' 프로그램도 있다. 흙판에 자기 얼굴 그리기, 도자기만들기, 물레체험 등 직접 흙을 주무르는 과정을 통해서 작품을 만들 수 있다. 흙판에 자기얼굴 그리기는 네모난 흙판에 자신의 얼굴을 그린 후 화장토로 색칠하는 작업이고 물레체험은 물레를 돌려 작은 화병을 만드는 체험이다. 도자기 만들기는 가장 일반적인 도예체험으로 흙을 길게 말아올려 원하는 형태의 도자기를 만드는 작업이다.

보통 체험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보통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주말 하루를 알차게 보낼 수 있다. 각 프로그램 별로 참가비가 각각 다르나 보통 1만원 안팎이다. 또 5천원만 내면 미술관 내 식당에서 점심도 제공하니 따로 점심을 챙길 필요도 없다.

염색체험은 주말에만 가능하지만 관화와 도예는 매일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미술관과 작가의 사정으로 변동이 생길 수 있으니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할 때 전화 상담(761-0137)은 필수다. 또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해도 미술관 입장료 (대인:2500원, 소인:1500원)는 별도로 내야한다. 영은미술관 홈페이지 <http://www.youngeunmuseum.org>를 방문하면 더욱 자세한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나래 기자



아이스케키 / [DVD]월레스와 그로밋2 / [공연] 네로와 버버

“총 천연색의 살아 움직이는 신비한 그림자 인형들”



아플로11호가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했던 1969년, 전라남도 여수에서 밀수 화장품 장사를 하는 엄마와 단둘이지만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가던 박치기대장 영래에게 가슴 벅찬 사건이 벌어졌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사실! 이제 아버지가 있다는 서울에 갈 차비만 모으면 되는데...

아버지라는 말만 들어도 설레는 영래는 얼굴도 모르는 아빠를 찾아가기 위해 엄마 몰래 생애 최초 아르바이트를 시작한다! "달고나, 설탕이, 눈썹사탕보다 딱 백배 더 맛있어주는 아이스케키 사시오~" 엄마 몰래 시작한 생애 첫 아르바이트가 쉽지만은 않지만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 영래는 하루 하루 씩 씩하게 케키 장사를 한다. 올 가을 온가족에게 시원한 웃음과 가슴 찡한 감동을 선사해 줄 가족영화.



아카데미상 수상에 빛나는 명품소장가치 작품이 DVD로 출시!

최첨단 발명품으로 무장해 야채를 훔쳐먹는 토끼로부터 마음의 보안을 담당하는 '해충 관리 특공대'를 운영하고 있는 최강 콤비 월레스와 그로밋. 마을 사람들 모두가 곧 있으면 열릴 마을 최고의 축제 '슈퍼 야채 선발대회'를 기다리며 애지중지 야채를 키우던 어느 날 밤...

평화롭던 마을에 드리우는 어두운 그림자... 누군가 마을의 야채를 모두 먹어치우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한다. 파헤쳐진 야채밭, 거대한 밭자국, 무너진 담장, 무시무시한 침입자의 흔적들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이는데...

특수 요원 월레스와 그로밋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끈질긴 추적 끝에 범인이 '거대 토끼'란 사실을 밝혀낸다! 과연 최강 콤비 월레스와 그로밋은 이 엄청난 늑을 체포할 수 있을 것인가!



어린이들에게 예쁜 그림을 그려 주는 화가아저씨와 함께 살고 있는 고양이 네로와 강아지 버버.

어느 날, 영리하고 장난이 심한 개구쟁이 네로는 화가아저씨가 어린이들에게 그려준 통닭, 주스, 피자 등을 몰래 먹어치우고, 화가 난 화가아저씨는 고양이 네로를 집에서 쫓아낸다.

거리의 질주하는 수많은 자동차에 놀라고, 동네 개구쟁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며 네로는 진정으로 화가와 버버에 대한 고마움과 그리움, 반성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향한다.

그 때, 화가 아저씨가 외출한 틈을 타 도둑이 신나게 자고 있던 버버와 귀한 보석들을 훔쳐가는 사건이 벌어진다. 용서를 바라며 집으로 오던 네로와 도둑은 마주치고, 이어 벌어지는 도둑과 네로와의 숨 막히는 한판대결!!!

창간 6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독자의 함께 호흡하는 -

뉴스데이 newsday.or.kr

민간 주주형에서 100% 공공형으로 개편

성남일보 성남일보 seonam.co.kr

청소년 선도의 파수꾼, 민간방범기동순찰대 이순규 본부장

“봉사라고 생각하니 힘든 일도 즐겁다”



● ● ●
봉사에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본부장은 그 이유를 '보람'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할머니와 둘이 사는 가솔 청소년 한 명을 새벽에 양평 집까지 데려다 준 적이 있었는데, 할머니가 굳이 밥이라도 한끼 먹고 가라고 붙들어서 대원들이 아침을 먹고 돌아온 경우도 있다"는 이 본부장의 설명에서 그 이유가 여실히 드러난다.

은 "봉사라고 생각하니 힘든 일도 즐겁다"고 입을 모은다.

또 자원봉사단체이다 보니 재정적 어려움도 있다는 것이 이 본부장의 설명이다. "시에서 장비지원금으로 보조금이 나오긴 하지만 사실상 장비지원금으로 쓰기에는 적다"고 말한다.

특히 아쉬운 부분은 바로 기동성과 직결되는 차량문제. 이 본부장은 "현재 4대의 순찰차를 가지고 있지만 성남 전지역을 커버하기는 매우 미흡하다"며 "마음 같아서는 순찰차가 서너대 정도면 좋겠지만 아쉬운대로 오토바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처럼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야람에도 불구하고 봉사에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본부장은 그 이유를 '보람'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할머니와 둘이 사는 가솔 청소년 한 명을 새벽에 양평 집까지 데려다 준 적이 있었는데, 할머니가 굳이 밥이라도 한끼 먹고 가라고 붙들어서 대원들이 아침을 먹고 돌아온 경우도 있다"는 이 본부장의 설명에서 그 이유가 여실히 드러난다.

이 본부장은 앞으로의 기동순찰대의 활동에 대해 "앞으로는 조금씩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한다.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 불우청소년들 모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봉사를 하고 싶다"는 이 본부장의 말에서 봉사심 하나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기동순찰대 1천5백여명 대원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이내래 기자

"앞으로는 조금씩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는 기동순찰대가 될 것"이라며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 불우청소년들 모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봉사를 하고 싶다."

지난 1981년 출범한 이래 26년간 성남 지역 방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방범기동순찰대를 이끌고 있는 이순규 본부장의 일성이다. 민간기동순찰대는 성남시 뿐아니라 광주시와 하남시까지 총괄해 청소년 선도와 방범방재에 앞장서는 지역지킴이로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동순찰대를 이끌고 있는 이순규 본부장은 지난 92년부터 기동순찰대 본부장을 역임해 온 말 그대로 베테랑이다.

특히 지난 98년 12월부터 검찰청과 함께한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을 진행하면서 광주 하남지역을 통합해 광역단위 본부장으로 취임한 후 8년이라는 긴 기간동안 기동순찰대의 수장으로 활약 중이다.

현재 기동순찰대 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대원은 성남지역만 5백30여명, 광주와 하남까지 합치면 1천5백여명에 달한다.

많은 대원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만취한 취객부터 가솔청소년까지 나이와 사연이 각자 다양한 사람들을 선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도둑이나 강도와 맞닥뜨려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만큼 때로는 위험하다. 그래도 순찰대원들

www.ksnga.or.kr

제52회경기도체육대회 & 제20회도지사기장탈 골프대회
우승

성남시골프협회
SEONG NAM CITY GOLF ASSOCIATION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486 제2종합운동장 BE1-3호
TEL : 031-7077-002(3Line) FAX : 031-705-8206

SEONG NAM CITY GOLF ASSOCIATION

“민생경제 살리기에 여·야가 없다”

임태희-신상진-김태년 의원, 조세특례법 개정안 공동 발의



◆ 좌측으로부터 열린우리당 김태년, 한나라당 임태희, 신상진 의원

성남지역 출신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덕 R&D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입주 기업들에 대한 세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2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의도 연구소장으로 있는 임태희 의원(한나라당, 성남 분당읍)에 따르면 지

난 22일 대덕 R&D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입주 기업들에 대한 세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임 의원을 비롯해 성남지역 출신인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과 열린우리당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 등 16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법률 개정안 제출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소 기업,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등 각종 세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소득세는 5년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은

최대 15년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등 당 지도부가 민생탐방을 위해 대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박성호 대전시장의 제안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발의와 관련해 임태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8월초 한나라당의 민생탐방이 예산과 법안으로 이어지는 첫 걸음”이라며 “대덕 R&D 특구는 지난 30여년간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쌍크랭크’로서 70여개의 공공 연구기관과 6천명이 넘는 박사급 연구인력, 국내 특허 출원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두뇌와도 같은 곳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곳에 입주한 기업들이 좀더 역동적으로 활동해 세계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첨단 연구단지로서 발전해 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오익호 기자

모란 성남

주원파크빌에서 만나는
종합운동장 바로앞!
행정타운(여수) 확정!
판교 분당 바로옆!

판교 신도시와 함께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성남의 미래가치!

▶ 계약금 1000만원 ▶ 평당 700만원대 분양가
▶ 발코니 샷시 무료시공 ▶ 편리한 교통, 인근 33평 APT값 비교

모델하우스 성황리 공개중

즉시입주!!
선착순 분양
33평형/70세대

분양문의 : 031)752-5687, 5647
010-7273-3447

주원건설 (주) KB국민은행



강태선

석면이 공기를 통하여 사람의 폐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미세하기 때문에 깊숙이 폐포까지 침투할 수 있고 그 '영구불멸'성으로 인하여 녹지 않고 남아 있게 되어 결국 폐암(특히 중피종암)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석면으로 생기는 폐암은 그 잠복기가 30년 정도이다. 석면 사용 이력면에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일본에서는 지난해 석면으로 인한 사망자가 700명을 넘었다. 조용한 시한폭탄 석면은 우리 주위에서도 그 폭발시점을 향해 맹렬히 초침을 돌리고 있음이 자명하다.

석면(石綿), 조용한 시한폭탄이다

영세업체 건물철거시 석면 오염 비상, 인근지역 아이들 위험 노출



건물을 해체할 때 발암물질인 석면이 공기 중으로 나올 수 있는데 이로 인한 문제는 상상으로 심각할 수 있다.

석면(石綿)은 화성암의 일종으로 광물에서 채취된 섬유 모양의 규산화합물이다. 모양은 머리카락의 약 5000분의 1 정도 되는 가늘고 긴 섬유의 결정체를 이루고 있다. '영구 불멸'을 뜻하는 그리스어 어원 그대로 불에도 타지 않고 마모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 위험성이 밝혀지기 전까지 기적의 광물로 불리면서 제품화돼 생활 속에 파고든 것만도 3,000여 종에 달한다.

각종 건축자재와 브레이크 등 내열과 내마모성이 요구되는 곳이라면 어디에도 석면이 쓰였다. 하지만 석면이 공기를 통하여 사람의 폐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미세하기 때문에 깊숙이 폐포까지 침투할 수 있고 그 '영구불멸'성으로 인하여 녹지 않고 남아

있게 되어 결국 폐암(특히 중피종암)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과학적으로 석면의 위험성이 확인되고 법적으로 규제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에 이르러서이다. 물론 미국에서의 일이다. 우리는 1970년대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새마을 노레로 알 수 있듯 초가지붕을 20%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으로 열심히 개량했던 것이다.

우리는 남들이 금지하기 시작했던 석면을 그 때부터 보란 듯이 사용했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80년 그리고 90년대 중반까지 석면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그 만큼 석면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석면으로 생기는 폐암은 그 잠복기가 30년 정도이다. 석면사용 이력면에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일본에서는 지난해 석면으로 인한 사망자가 700명을 넘었다. 조용한 시한폭탄 석면은 우리 주위에서도 그 폭발시점을 향해 맹렬히 초침을 돌리고 있음이 자명하다.

프랑스 해군의 자량이던 핵 추진 항모 클레망소가 97년 퇴역 이래 해체 일정을 잡지 못하고 2년 넘게 공해를 떠돌고 있다고 한다. 보은 단열재로 석면을 다량 사용해 폐선소마다 받기를 꺼려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올해 초 귀환 명령을 내렸다는 소식이다.

미국이나 영국 등지에서는 건물을 매매할 때는 반드시 석면사용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석면이 많이 사용된

건물을 잘못 샀다가 회사가 망할 뻔한 사례도 있다.

재건축을 우리나라처럼 일색으로 반기는 나라도 드물다. 재건축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막대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인데지만 실제로 계산에 석면 문제가 빠져 있는 것도 그 원인에 일조한다고 볼 수 있다.

재건축시 기존건물 철거용역은 주로 철거만을 전문으로 하는 영세업체에서 맡아서 하는데 이들이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인근 주민들 특히 어린아이들이 문제가 된다. 어린이는 특히 면역력이 낮고 어른보다 호흡량과 활동량이 상대적으로 많아 공기중 오염물질에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석면이 들어있는 건물을 해체할 때는 노동부 해당 지방관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석면을 철거하는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이라면 인근 주민들에게도 영향이 없을 것이기에 환경부 보다는 노동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일단 주위에서 건축물 해체현장이 있다면 노동부 성남지청 산업안전과에 연락하면 담당 감독관이 해체현장 관계자와 연락하여 석면 사용여부 및 허가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관련 지도와 감독을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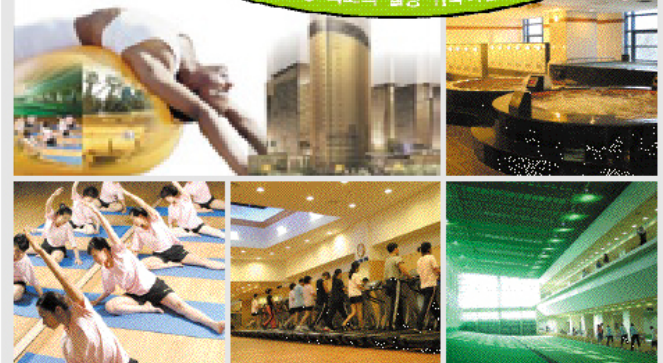
노동부 성남지청 산업안전과 강태선

풍림아이원 스포츠나인

"생활속의 스포츠... 스포츠를 통한 삶의 재충전"

분당의 중심 서원동에 위치한 고품격 스포츠 웰빙클럽 스포츠 나인은 여유로운 50타석 골프장, 최신 시설의 멀티 휘트니스 클럽, 1,000평의 대규모 사우나 귀하께서 꿈꾸던 생활 속의 특별함으로 다가하겠습니다.

스포츠 나인을 선택하시는 순간 귀하는 분당 최고의 웰빙 귀족이십니다



고품격 스포츠 웰빙클럽 스포츠나인

sportsnine

T.031 · 783 · 5600

홍중환 분당경찰서 민원실장

“민원실은 24시간 시민을 위해 열려있죠”



중환 민원실장은 "이러한 시민들을 위해 좀 더 친절하게, 좀 더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한다.

일례로 경찰청에서는 올 8월부터 '해피콜제도' 도입했다. 민원을 처리한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통해 '민원 처리가 신속했는지, 친절했는지' 등을 묻고 민원인의 불편 사항이 접수되면 관계부서로 직접 통보해 신속히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민원인들은 "경찰이 더욱 친절해 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또한 민원인을 위한 '즉일처리제도' 호평을 받고 있다. 민원실을 방문한 당일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를 즉시 연결해 주는 제도로, 기존에 민원 처리를 위해 두세번 경찰서를 방문해야 했던 것을 한 번으로 줄여 민원인들의 호응이 높다는 것이 홍중환 민원실장의 설명이다.

인터뷰를 위해 한시간여간 민원실을 방문하는 동안 실 새 없이 민원인의 방문이 줄을 이었다. 바쁜 업무에도 "우리의 친절서비스를 통해 민원인들이 민원 처리에 만족한다면 그것이 바로 보람"이라고 말하는 홍중환 민원실장.

21년간 경찰에 몸담은 베테랑 경찰관인 홍중환 민원실장은 "민원실은 언제나 시민을 위해 열려있다"고 말하고 "방문·전화·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니 어려워 말고 상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나라 기자

민원실에서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경찰서를 어려워하는 것이 사실. 홍중환 민원실장은 "이러한 시민들을 위해 좀 더 친절하게 좀 더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한다.

경찰서, 보통 시민들은 경찰서 하면 범죄사건 혹은 범죄자를 떠올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사실 경찰서는 우리가 필요한 여러가지 민원처리 또한 담당하고 있다. 분당경찰서 민원실의 홍중환 민원실장 만나 민원실에서 하는 일을 알아보았다.

민원실에서 하는 일은 크게 수사민원, 교통민원, 각종 인허가 관련 민원,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홍중환 민원실장은 "고소 고발이나 진정사건을 비롯해 범죄·교통사고 사실 확인, 범죄경력 조회, 분실 등의 접수증 발급, 정보공개 등 민원실이 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다"고 말한다.

고소나 고발의 경우로 경찰서를 찾는 민원인의 경우 민원실에서는 고소·고

발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자세한 처리 절차를 안내한다. 또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즉시 경제팀을 연결해 그 날 조사를 받고 귀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많은 민원인이 이용하는 교통민원의 경우는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교부를 비롯해 적성검사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또한 교통사고 사실 확인 안내도 민원실의 몫이다. 분당경찰서의 경우 교통민원실과 일반민원실이 분리되어 있다.

또 종종 헤어진 가족을 찾기 위해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들도 있다. 헤어진 가족찾기의 경우 호적등본을 통해 가족임을 입증하면 연락처를 알 수 있다.

이처럼 민원실에서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경찰서를 어려워하는 것이 사실. 홍

나눔의 이웃 관악이동무원회

“작은 정성 모아 큰 사랑으로...”

TEL 031)702-8583 FAX 031)702-558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97-11호

후원금 계좌번호 ■KB국민은행 366501-01-057821 ■우리은행 1005-000-911931

분당 차병원 소화기 내과 임규성 박사

“간기능 검사의 모든 것 알아보자”

사람들도 성씨가 있듯이 간염바이러스도 여러 아형이 있어 치료방법 또한 틀려

● ● ●

간기능 검사에서 알부민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알부민은 간세포라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입니다. 만일 생산이 여의치 않으면 몸에 부족과 복수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게 되면 알부민 주사를 놓게 되는데 혈중내에서 15일 정도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 외에서 간에서 생산하는 물질 중에 출혈을 억제하는 응고 물질을 만듭니다. 심한 간질환 환자가 멍이 잘 생기는 것은 이 응고물질이 부족해서입니다.



황달이 오면 간기능검사 중 어떤 것이 이상 소견을 보이나요?
 빌리루빈의에 알카라인 포스 포타제와 감마 GTP가 상승하는 소견을 보인다. 이 검사의 상승은 빌리루빈의에 담즙의 분비를 막는 담도관에 결석, 암 등이나 또는 장기적 담도 염증을 갖는 경우에 증가한다. 감마 GTP는 만성적으로 술을 먹는 사람의 간기능 장애를 가능 할

푸르트롬빈 시간으로 가능하고 있습니다. 이는 간에서 만들어 내는 응고 물질의 복합체입니다. 정상 80% 이상이면 정상기능 갖는 것이고 40-80%면 중등도, 40% 이하이면 심각한 수준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간이 나쁘면 왜 혈소판이 떨어지나요?
 간에 들어오는 혈관은 비장과 장의 혈관이 모여 문맥이라는 혈관을 통해 옵니다.

간경변은 간의 섬유화와 재생결절들이 생겨 간으로 들어와서 심장으로 가야하는 혈관을 방해하여 피들이 역류하고 정체되므로 비장이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커진 비장은 정상적인 세포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을 깨 버립니다. 혈소판은 상처가 생겼을 때 피딱지를 만들어 출혈을 막는데 이것이 부족하면 출혈 경향이 높아집니다.

간염 표지자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간염을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의 이름을 밝히고 경과를 보기위한 검사이다. B형 간염바이러스 표지자는 표면항원(s 항원)이 있고 C형 간염바이러스는 C형 간염 항체를 검사하여 확인합니다. A형 간염은 IgM-A형간염 항체를 검사하여 원인을 규명합니다.

또한 원인이 밝혀지면 급성인지 만성인지 밝혀냅니다. 그리고 바이러스가 간세포 속에서 번식을 하는지 전염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를들어 B형간염 바이러스를 갖고 있을 때 HBV-DNA(핵산), HBe항원 HBe항체를 검사합니다. HBV-DNA(+), HBe항원(+), HBe항체(-)이면 바이러스가 전염력과 번식력이 왕성한 것입니다. 반대로 HBV-DNA(-), HBe항원(-) HBe항체(+)이면 전염력과 번식력이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특히 HBV-DNA가 높으면 간경변과 간암의 발생이 높다 합니다.

간염바이러스의 지노타(genotype)는 무엇인지요?

사람들도 성씨가 있듯이 간염바이러스도 여러 아형이 있습니다.

이 아형들이 치료의 반응도 틀리고 병의 경과 달라 검사를 하여 임상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간염 검사하는 여러 방법과 치료에 대한 궁금증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만성 B형간염을 앓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가 방문하여 여러 가지 간 검사에 대해 자문이 있었다.

간기능 검사에 GOT, GPT가 무엇인지요?

GOT, GPT 는 무슨 원인이던 간세포가 파괴 되어 간세포 속의 효소가 혈중내로 흘러들어가 정상보다 수치가 높아졌을 때 간기능 장애, 즉 간염이 있다고 말한다. GPT는 다른 장기보다 간세포에 많아 간기능 이상을 잘 표현하지만, GOT의 상승은 간 외에도 근육, 심장세포, 신장, 적혈구 등에도 있어 꼭 간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간염이 걸리면 황달이 오는지요? 또 어떤 검사를 하는지요?

황달 검사는 빌리루빈이란 검사를 한다. 이는 노란색소를 갖고 있어 간염이 걸리거나 이 색소가 배설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막과 피부가 노랗게 될 수 있다.

간염이 걸리면 모두 황달이 오는 것이 아니며 10명중 3명 정도에서 발생된다. 색소가 배설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선천적인 경우와, 후천적인 경우들이 있다. 특히 후천적은 병적 상태를 말하는데 담도 결석, 담도암, 만성적 담도염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 있다.
황달이 오면 왜 초음파를 먼저 하나요? 복부 컴퓨터를 먼저 하면 안 되나요?

초음파와 컴퓨터는 간내, 간의 담도관의 폐쇄로 담도관의 확장 여부와 원인을 규명 할 수 있다. 복부 컴퓨터가 정확도는 초음파보다 있지만 방사선 노출량이 많고 값도 비싸 필요할 때 검사한다.

복부 초음파는 복부를 검사하는 청진기와 같습니다. 또한 방사선에 노출 걱정 없이 수차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보험혜택이 없어 환자들이 꺼리는 실정이지요.

간기능 검사에서 알부민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알부민은 간세포라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입니다. 만일 생산이 여의치 않으면 몸에 부족과 복수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게 되면 알부민 주사를 놓게 되는데 혈중내에서 15일 정도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 외에서 간에서 생산하는 물질 중에 출혈을 억제하는 응고 물질을 만듭니다. 심한 간질환 환자가 멍이 잘 생기는 것은 이 응고물질이 부족해서입니다.

간이 많이 망가져 있을 때 남은 간이 어느 정도 대신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더구요?

프로필

- 분당차병원 내과교실 주임교수
- 대한민국 간학회 평위원
- 대한민국 의사 회원

전영수 경기도 교육위원회 의장

마지막 꿈, “교육의 새 희망 일으키는 것”



교육현장에서 새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전영수 교육위원.

경기도 교육위원 2명을 선출하는 제4선거구에서 4선 도전에 성공한 전영수 경기도 교육위원회 의장은 “선생님들이 마음놓고 가르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최근 교편을 위협하는 많은 일들로 인해 스승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었지만, 학생, 학부모 모두가 스승에게 감사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나가야겠다”며 최근 교편하락에 따른 우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뜻을 시사했다.

“예전엔 스승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된다고 우린 배웠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지는 현 상태가 아쉽지만,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 선생님이 존경받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 모두를 대우받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위원 2명을 선출하는 제4선거구에서 4선 도전에 성공한 '전영수(67, 상대원3동) 경기도 교육위원의 다짐이다. 전 의원은 여기에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장으로 선출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년째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 당선자는 이번 4년까지 더하면 16년째 교육위원으로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한마디로 교육계에 또 다른

원로가 된 전 당선자는, 당찬 포부처럼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 등 모든 교육가족을 위해 '희망경기 교육'을 펼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는 등 경륜있는 4선 위원답게 내공이 비쳐지고 있다.

전 의장은 이번 선거가 가장 어렵다고 토로한다. 2명을 뽑는데 무려 11명의 후보들이 도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설사 낙선되었다 하더라도 후회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는 아내(이영성, 전도의원)와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뿌듯한 모습을 보이는 등 부부애를 과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마음놓고 가르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우선인 것 같다. 최근 교편을 위협하는 많은 일들로 인해 스승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

되었지만, 학생, 학부모 모두가 스승에게 감사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나가야겠다”며 최근 교편하락에 따른 우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뜻을 시사했다.

전 교육위원회 의장은 성남맨이다. 성남지역에서 많은 사회활동을 벌이고 있는 예가 바로 그것이다. 전 의원은 성남시 새마을 후원을 비롯해 성남 모터클럽, 성남 문화원 이사, 성남 생활체육회 회장, 성남 남부경찰서 행정발전위원, 의고와 영어마을 조성 등 성남발전에도 남다른 활동을 벌인 바 있는 활동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다 보니 교육에 관한 열의도 그 누구보다도 크다는게 주변의 전언이다. 따라서 전위원은 선거과정에서 4대 매니페스토를 선언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첫번째로 학생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꿈의 교육도시를 건설하고, 선생님들이 존경받는 행복 교육도시를 위해 경영자율화, 잡무의 경감, 존경받은 교육풍토 조성, 농촌지역에 교원사택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부모님들이 믿을 수 있는 안심 교육도시를 위해, 웰빙 영양식단조성,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노후된 책걸상 교체, 특수목적 중·고·유치, 도농간 학력격차 감소, 사립학교 재정지원 확대, 영어체험 학습장을 설립, 학력격차 감소, 영어체험 학습장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익호 기자

“1천인 후원독자운동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지난 1991년 첫 발을 댄 지방자치단체가 15돌을 맞아 나름대로 뿌리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권력에 의지해 온 지역발전이 지역주민들의 참여 속에서 대안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신문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방자치와 지역언론이 수레의 양바퀴처럼 굴러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신문의 현실은 척박하기만 합니다.

창간 7년차를 맞고있는 성남일보도 그동안 인터넷 대안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새로운 대안 언론의 창출을 위해 새로운 정간법에 따라 인터넷판 성남일보와 종이신문 뉴스데이를 발행해 독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남일보/뉴스데이는 지역 최초의 인터넷 일간신문으로 지난 1998년 뉴스서비스를 시작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2창간의 정신”으로 ‘1000인 후원독자운동’을 시작하려 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가입해 주시는 후원독자는 지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데 결정적 힘을 보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부 / 가 / 서 / 비 / 스

- ◆ 뉴스데이 서비스
- ◆ 성남일보 이메일 뉴스
- ◆ 속보 모바일폰 문자서비스제공
- ◆ 남한산성 생태학교 프로그램 참여
- ◆ 성남일보, 뉴스데이 주최 행사 초청



스킨스쿠버 이야기②

미지의 수중세계... “신비로움에 푹 빠져요”

스쿠버장비에 대해 알아보자.

스쿠버 장비로는 압축된 공기를 저장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Air tank(공기통)가 필요하며 공기통은 통상적으로 200bar의 압력으로 충전을 시켜 사용한다.

그리고 고압의 공기를 주변압으로 조절하여 수중에서 편안하게 호흡 할 수 있게 해주는 Regulators(주호흡기)와 비상(공기고갈)시 버디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Octopus (보조호흡기), 그리고 수면에서는 충분한 양성부력과 수중에서는 편안한 중성부력을 제공해 주는 B.C.D(부력조절기), 수상레저를 즐길 때 착용하는 구명조끼와 비슷한 모습이나 모든 안전장치들이 설계, 부착된 과학적인 장비이다.

그리고 허리에는 Weight belt (납벨트)를 착용하는데 이것은 양성부력인 장비와 인체를 중성부력으로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여 수중에서 편안한 유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위에서 나열한 장비들이 기본적으로 사용되어지는 Scuba diving 장비이다.

이 외에도 보다 안전하고 재미있는 수중활동을 위해 수중렌즈, 다이빙칼, 열염, 소시지(s&b), 수중사진기 등도 필요하게 될 것이다. 어느 다이버는 반드시 물보기를 챙겨 가지고 다니는 다이버도 있다. 이는 수중의 마크로 생물을 관찰하고 싶어 하는 그만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하나의 장비인 것이다.

“나는 수영도 잘 하지 못하는데...바다에만 가도 겁이 덜컥 나고, 물이 밖쪽에만 잠겨도 머리가 아파오는데...”

이런 사람들도 Scuba diving을 배울 수 있을까? 하며 겁내하는 이들을 주변에서 생각 외로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의구심은 교육이란 과정을 통해, 그리고 개개인의 노력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초급자들, 폐닉을 가진 다이버 입문자들을 위한 교육과정이 너무도 쉽고 그리고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것이다. 필자 역시도 이런 다이버 입문자들을 많이 만나 봤으며 모두가 열심히 교육에 참여하여 지금은 멋진 다이버가 되어 수중세계에 빠져들고 있다.

물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친숙해졌기 때문에 수중에서 무중력 상태로 떠 있을 때가 가장 편하다고도 한다.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공기통 하나로 수중에서 얼마 동안이나 있을 수 있나요? 하는 질문이다. 필자가 한창 시절 가장 지겨웠던 부분이 물리시간인데 이런 질문을 받다보면 그 시절을 회상하며 마치 공부 잡했던 학생이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답변하곤 한다.

이는 보일의 법칙을 이해하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수심이 깊어져 압력이 높아지면 부피는 그 압력에 반비례한다는 간단한 진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수면에서 100분간 호흡이 가능한 공

기량이라면 수심 10m에서는 50분간 호흡이 가능하다는 이론이다.

따라서 수심에 따라 그리고 운동량에 따라 수중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은 변하는 것이다. 어느 광고카피에 보면 ‘침대는 과학이다’라는 카피가 있다. 필자는 흔히 말한다. 침대만 과학이냐고?

Scuba diving이야말로 과학을 바탕으로 된 이론위에 정립된 레포츠이기에 모험적이고 스릴있는 레포츠임에도 안전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전 세계인이 선호하는 그리고 가장 해 보고 싶어 하는 종목의 하나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영화 <오픈워터>나 <니모를 찾아서>, <그랑블루> <블루스퐁> 등을 보면 수중세계가 무척 신비롭고, 아름답지만 반면에 가끔은 무섭고 힘들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증된 Instructor에 의해 Diver의 길로 인도되어야 한다.

Scuba diving을 즐기기 위해서는 어떤 장비가 필요할까?

필자가 Scuba diving을 시작할 무렵은 장비의 부족과 기능의 결함, 또한 비싼 가격, 그리고 대중화 되어있지 않은 종목으로 분류되어 잠수를 즐기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떠한가? 최고의 기술과 연구 인력을 바탕으로 보다 안전하고 편안

하고 과학화 된 장비들이 생산되어져 우리나라에 수입되어지고 있다. 주5일제의 시작과 더불어 많은 다이빙 동호인이 증가되는 추세이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아직은 매니아들이 그리 많지 않다.

소비층이 두텁지 못하다 보니 아직은 장비의 가격이 만만치 않지만 앞으로는 보다 현실적인 가격으로 장비를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하고 필자도 기대해 본다. 그 Scuba diving을 즐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장비가 필요하며 이름은 무엇이라 불리어 지는지 알아보자.

먼저 다이버의 체온유지와 해양생물과 기타 물체로부터 신체보호를 위해 Suit (잠수복)가 필요하다. 수트는 다이빙을 하게 될 바다의 수온과 그 곳의 해양환경에 따라 두께나 재질이 달라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낮은 수온으로 인하여 동남아나 따뜻한 나라들보다 더 두껍고 보온력이 탁월한 잠수복을 착용하게 된다.

영광에는 Mask(수경)를 준비한다. 사람의 눈은 공기라는 공간을 통해서만 모든 사물을 정확하게 볼 수 있기에 수중에서 물과 눈 사이에 공기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Mask가 필요하다. 그리고 발에는 추진력과 방향을 잡기위한 Fins(오리발)을, 발 부위의 보호를 위해 Boots(잠수신발), 손 보호를 위한 Gloves(잠수장갑)이 필요한데 이 장비들은 스킨장비라 칭한다.

이태복 전문기자

프로필

Marine World Dive Academy 대표
NAUI Instructor Trainer (Skin, Scuba)
ASHI Instructor Trainer (First Aid & CPR)
Scuba Diving Korea Instructor Trainer
수상안전 강사

이태복 전문기자



말레이시아 시파단에서 펼쳐지는 수 천마리의 바라쿠다무리와 다이버 (대형 어종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무리를 지어 이동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다시 된다 - 성남환경운동연합

“환경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하겠다”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환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지구를 지키고 보존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요한 환경, 특히 성남의 환경을 위해 두 발 벗고 뛰는 사람들이 있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이다.

2002년 5월 25일 창립한 이래 지금까지 성남의 환경을 위해 일해온 성남환경운동연합은 환경보전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정책연구사업', '시정 및 의정감시활동', '환경교육사업' 등을 비롯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상담하는 등의 '환경법률사업'과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민환경 정보사업' 등에 앞장서고 있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의 가장 대표적인 활동은 '조사연구사업'과 그에 수반되는 '시정 및 의정 감시활동'. 성남의 숲, 하천, 공기, 쓰레기 등 각종 환경현안을 조사 및 연구하고 지자체와 의회가 친환경정책을 추진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다.

예를 들면 성남 수정·중원지역의 프

거운 감자인 '1공단 공원화'도 성남환경운동연합이 앞장서서 추진한 일이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녹지비율이 낮은 수정·중원구의 녹지공간 마련을 위해 2003년부터 1공단 공원화를 추진해왔고, 성남환경운동연합의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현재 이대엽 성남시장이 1공단 부지 1만6천평 중 1만평을 공원화하겠다고 약속한 상태이다.

또한 성남시의 서쪽에 위치한 대장동 개발사업, 영덕-양재간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장동은 그린벨트보다 강하게 규제하고 있는 수도권 남단녹지지구이고, 영덕-양재간 고속도로는 수도권 남단녹지는 물론 수도권의 허파인 청계산을 관통한다. 이 공사들이 성남시의 녹지대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더러 영덕-양재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심각한 교통체증과 대기오염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성남환경운동연합의 판단이다. 이외에도 성남환경운동연합이 하고 있는 일들은 셀 수 없이 많다. 성남의 44개동 쓰레기를 성상조사함으로써 재활용과 쓰레기의 비율을 산출한 결과,

소각용 쓰레기봉투에 담겨진 재활용가능 쓰레기가 무려 43%에 달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도 성남환경운동연합이다. 이처럼 성남환경운동연합이 벌이는 조사연구활동은 곧 시민들에게 환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민환경 정보사업'이나 '환경교육사업'으로 이어진다.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주부환경여행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환경캠프 등의 교육활동은 성남시민들의 환경의식을 고취시켜 결국은 환경보호의 필요성 깨닫고 실천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성남시가 읍동공원 근처에 1천5백평 규모의 미니랜드를 건설하려던 계획을 막아낸 것도, 2006년도에 70만평 규모의 종합레포츠영상문화단지 개발 저지운동을 펼친 것도 성남환경운동연합이다.

경제적 개발논리에 맞서 우리의 환경을 지켜내기 위한 '성남환경운동연합'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환경을 지키고 보존하는데 앞장서는 '성남환경운동연합'에 박수를 보낸다.

이나라 기자

Mini Interview

“환경운동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죠”



지운근 성남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환경운동을 하신지는 얼마나 됐나요?
▷94년도에 인천에서 시작했습니다. 성남에서 활동한지는 5년 이상 되었구요.
▶환경운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산업재해나 직업병을 전문으로 하는 상담실에서 근무하다가 환경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산재나 직업병도 환경운동의 일부였거든요. 예를 들어 공장에서 화학약품 사용할 때 직원들이 화학약품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그것이 몸에 축적되면 직업병이 되고 인근 주민들처럼 광범위한 대상에게 간접적으로 노출된다면 환경문제가 되는거죠. 상담을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더군요.

▶현재까지의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육군 도하부대 청계산 이전 저지투쟁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수도권의 허파라고 불려왔던 큰 가치를 지닌 청계산에 육군 도하부대가 이전하기로 했던 것을 저지한 경우인데요. 이전 계획에 따르면 청계산이 약 100만여평정도 훼손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함께 이전을 막아냈습니다. 군과 싸워 이긴 경우는 전국적으로 흔치 않기 때문에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또 인천에서 활동하던 당시 굽업도 펌페기장 싸움, 영흥도 화력발전도 싸움 등 국가나 큰 힘을 가진 조직에 의해 환경과 파괴 강요되어지는 상황에서 주민들과

함께 싸워 이겼던 것이 매우 기억에 남고요.

▶성남지역의 환경이 가진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성남지역 지도를 보면 성남의 모든 시설이 유독 동쪽에만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도권 남단 녹지' 때문인데요. 현재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수도권 남단녹지는 대가나 환경이 매우 잘 보존되어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녹지부분이 갈수록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 남부의 교통난 해결을 위해 계획되고 있는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고거리-석수간고속도로', '성남장호원간고속도로'등 많은 도로들이 성남을 관통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남의 녹지파괴 및 대기, 환경오염과 교통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탄천인데요. 현재 탄천의 수질이 평균적으로 5급수 이하입니다. 이러한 탄천의 수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탄천이 흐르고 있는 지자체들(강동,송파,강남,서초,용인,성남)의 협의를 통한 개선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환경운동이 중요한 이유와 앞으로의 활동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환경운동이 중요한 것은 미래를 그 속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니까요. 예전에 비해 아토피나 알레르기성 질환이 늘어나는 것은 바로 환경이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환경오염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죠. 앞으로는 이러한 우리의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꾸준히 활동을 전개해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영덕-양재간 고속도로'와 '대장동', '1공단' 문제는 성남의 환경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환창 흥해식품 회장

“과도한 욕심이 경영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죠”



게 처리하려고 했던 것을 보고 다들 도움의 손길을 내밀더군요. 그 과정에서 제품 우수성을 알리게 되니 자연히 실적은 더 상승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한걸음 한걸음 나아 온 7년, 이제는 300여평 규모의 제조공장을 갖춘 탄탄한 중소기업을 꾸리기까지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그 길을 지탱해 준 것은 지난 날의 뼈아픈 경험에서 얻은 교훈이었다고 정 회장은 말한다.

“그 전에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주위를 둘러볼 겨를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과도한 욕심이 경영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라는 것을 알게된 것부터가 큰 교훈이지요”

욕심을 버리고 주변을 둘러보니 좀 더 탄탄하게 기업을 꾸려갈 수 있는 길이 보이더라는 것이 정 회장의 설명이다. 거기에 제품개발에 대한 정 회장에 노력은 발전 가능성을 더한다. 누구나 인정하는 소문난 삼부자 김에 안주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갯벌자생해초 ‘갯태’로 다시 한 번 시장에 도전장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실수 했다고 해서 굴하지 않고 50대 중반의 나이에 새로운 미래계획을 세운 것이 결국 내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운 원동력이 되었다”고 말하는 정 회장. 소비자의 입장에서 연구개발에 힘쓰는 그의 노력이 눈부시다.

이나래 기자

IMF 어려움 딛고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
그렇게 한걸음 한걸음 나아 온 7년, 이제는 300여평 규모의 제조공장을 갖춘 탄탄한 중소기업을 꾸리기까지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그 길을 지탱해 준 것은 지난 날의 뼈아픈 경험에서 얻은 교훈이었다고 정 회장은 말한다.

“실수 했다고 해서 굴하지 않고 50대 중반의 나이에 새로운 미래계획을 세운 것이 결국 내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운 원동력이 되었다.”

전 세계에서 일본과 우리만 먹는다는 김, 특히 요 근래 웰빙열풍을 타고 김의 효능이 밝혀지면서 김은 우리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반찬이 되었다.

이러한 김을 비롯한 식품류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흥해식품 정환창 회장. ‘소문난 삼부자김’이라는 익숙한 제품을 통해 고객들을 만나고 있는 정환창 회장은 탄탄하게 기업을 꾸려가는 것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정 회장의 이런 탄탄한 경영 뒤에는 고난의 시간을 딛고

일어선 사연이 있다.

정 회장이 처음부터 식품업에 종사했던 것은 아니었다. 사실 정 회장은 약 25년여간 기업체를 경영해 온 중견 기업가였다. 그러나 그런 정 회장에게도 IMF는 어려운 시기였다. 경영악화로 4개 법인이 도산 처리됐다. “50대 중반이니 남들은 이제 정리할 무렵에 맨 손으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정 회장은 당시 어려웠던 상황을 회상한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나섰다. 유통이라는 전혀 새로운 분야에 발을 내딛은 것은 커다란 도전이었다. “지인들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무명하

인터넷 검색창에 **성남일보** 를 치세요

성남 · 광주지역 뉴스를 성남일보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 성남일보 snilbo.co.kr • 뉴스데이 newday.or.kr

남한산성생태학교

“솔방울 던지기, 뱀눈보기 모두 신기한 경험이에요”



남한산성은 성남에서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역사적 유적이자 자연환경이다. 하지만 가끔은 가까이에 있어서 오히려 그 실체를 잘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곁에서 남한산성은 그저 '드라이브코스' 혹은 '외식코스'로 인식되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들의 생각과는 달리 남한산성은 수많은 종류의 동식물이 살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다. 이처럼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으로서 남한산성을 다시 보기 위한 움직임으로 '남한산성 생태학교'가 첫 걸음을 옮겼다.

기자가 참관한 남한산성생태학교 첫 수업은 지난 8월 26일 이루어졌다. 아침 10시, 남한산성 남문 앞에 모인 참가자는 대략 30여명. 주로 초등학교와 보호자로 이루어진 참가자들은 "가까운 지역

생태환경을 살펴보는 기회를 통해 어린이들의 자연학습을 돕기 위해"라고 참가 이유를 밝혔다.

등산로를 따라 생태학습에 들어가기 전, 30여명의 참가자들은 초등학교 저학년팀, 고학년팀, 학부모팀으로 각각 나뉘었다. 수준별 맞춤학습을 위해서였다. 기자는 생태학교에 참가하는 주요 연령층인 초등학교 저학년팀을 따라 생태학습에 참여했다.

"대체 생태학습이란 어떻게 하는걸까?"는 의문을 가진 것도 잠시, 등산로를 따라 들어서면서부터 근처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가 모두 공부의 대상이었다.

그저 '풀' 또는 '잡초'로 인식되던 풀들이 각각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초등학교생들에게는 신기한 일인지 서보 "이 풀은 이름이 뭐예요?"라는 질문을 던지는 과정 자체가 생태학습이었다.

소나무는 꼭 나무껍질이 소똥을 발라놓은 것 같아서 소나무라든지, 담쟁이 덩굴이 나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담쟁이 덩굴 잎 밑의 빨판때문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쉽고 당연한 이야기들이지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은 생태계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지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떨어진 솔방울을 과녁에 맞추는 '솔방울 던지기'나, 눈 밑에 거울을 대고 높은 수목과 하늘을 올려다보는 '뱀눈보기' 등은 생태체험에서 나아가 즐거운 놀이로서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했다.

별도로 이루어진 학부모팀의 수업에서는 좀 더 전문적인 수업이 진행되었다. 남한산성에 서식 중인 수목의 종류, 환경 생태계의 중요성 등에 대한 수업 내용을 들으면서 일부 참가자는 디지털 카메라와 메모지를 동원해 수업 내용을 기록하는 열성을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학부모팀 수업을 따로 진행한 것에 대해 보통 참가한 학부모들이 수강의 주체가 되기 보다는 어린이의 보호자 역할에 치중했던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유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시간여에 걸친 생태체험을 마치고 난 어린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재미있었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부모와 함께 생태학교를 수강한 김승우(11, 분당구 야탑동)군의 "뱀눈보기와 솔방울 던지기가 재미있어 다음에 또 오고싶다"는 호응에 생태학교 측도 "매월 마지막주 정기 프로그램을 마련해 남한산성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공부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만들어 갈 방침"이라고 화답했다.

이나래기자

소나무는 꼭 나무껍질이 소똥을 발라놓은 것 같아서 소나무라든지, 담쟁이 덩굴이 나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담쟁이 덩굴 잎 밑의 빨판때문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쉽고 당연한 이야기들이지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은 생태계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지는 모습을 보였다.



“남한산성 생태학교가 문을 엽니다”

9월23일 남한산성서 숲 체험하세요

21세기는 생태 문화의 시대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성남일보는 창간 6주년을 맞아 독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족의 성지 남한산성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남한산성 숲체험교실'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문을 여는 '남한산성 생태학교'는 환경의 보고인 남한산성의 생태를 보존하고 환경문제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남한산성 생태학교는 앞으로 매월 정기적인 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주제: '민족의 성지를 따라 걷는 남한산성 숲 체험'
- 일시: 2006년 9월 23일(토요일) 오전 10시 ~ 12시(2시간)
- 장소: 남한산성 남문 주차장(9번 버스 종점)
- 대상: 숲을 사랑하는 시민 누구나(선착순 30명)
- 준비물: 물, 약간의 간식
- 참가비: 무료
- 문의: 031-721-99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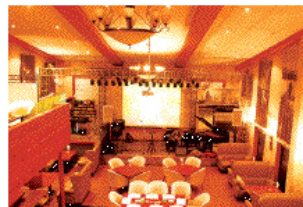




Business Live Cafe & Restaurant Casablanka

成功을 부르는 공간
나만의 무대
나만의 쉼터

당신이 힘들고 지칠때 안식처가되고,
당신이 외로울때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OPEN : AM 10:00
CLOSE : AM 02:00
LIVE공연 : PM 08:30/09:30/10:30/11:30



카사블랑카 찾아오시는길
※공연시간 및 공연자는 사정상 바뀔 수 있습니다



T.(031)709-5533, 703-6374

지금 보건소는 변신중

‘보건소’ 가면 뱃살 쏘옥, 건강해진다?



이제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무더위가 마냥 싫지만 싫어서 운동을 그만 두었던 사람들이 밖으로 나올 시기가.

그래서 좋다는 뱃살 프로그램을 찾아 다리 폼 파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런데 최근 뱃살 비만 탈출을 위해 인근에 있는 보건소를 찾는 발걸음이 많아지고 있고,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주민들이 보건소를

찾는 이유는 체지방량의 감소와 복부비만의 해결을 위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시도해 3개월동안 무려 10kg 감량에 성공한 참가자들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 광주시 보건소

광주 보건소는 시민들의 비만극복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뱃살탈출 3060교실’이 한층 새로워진 내용으로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 170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문을 열었다.

이번 교실은 지난달 2일부터 오는 10월 18일까지(12주간) 매주 수요일마다 운영. 다양한 운동처방 및 균형있는 영양교육을 통해 과다체중을 조절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교육에 앞서 체중 ▲체지방 ▲근육량 ▲팔레스테롤 ▲혈압/혈당 ▲식습관/운동습관 등 각종 비만관련 사전조사를 실시, 그에 맞는 개인별 운동 및 식단요법을 처방을 받고 실천하게 된다.

◆ 성남시 분당구 보건소

분당 보건소는 이미 지난달까지 비만관리 교실을 3개월동안 운영해 최고 10kg 감량에 성공한 참가자를 비롯, 평균 67.9kg이던 참가자들의 체중이 평균 64.4kg으로 감량해 참가자 전체가 평균 3.5kg의 감량 효과를 봤다는 것이다.

특히 체지방량은 36.6%에서 34.8%로, 체질량수(BMI)는 27.7kg/m²에서 25.727.7kg/m²로, 뱃살은 2.2cm가 평균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 성남시 중원구 보건소

중원구 보건소는 주민들의 체력을 측정하고 개인에게 맞는 체력단력 프로그램을 갖춘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 폐활량 측정기 등 10여 가지 기초체력 장비를 갖추고 운동처방사와 영양사가 각각의 특성에 맞는 필요 운동량과 방법, 그리고 식사조절을 직접 가르치고 있다.

처방을 받기 위해서는 3700원의 비용

을 지불해야하지만, 일단 지불하면 재측정 무료는 물론이고 체력단련실에 있는 런닝머신, 흉부근력강화기구, 사이클, 스테퍼 등의 운동기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뿐만아니다. 비만탈출을 위해 4개월 과정의 요가운동교실과 주부근력강화운동교실, 그리고 주부다이어트 교실을 열고 체계적으로 비만관리를 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고 있다.

◆ 성남시 수정구 보건소

수정구 보건소는 아이들의 건강의 주 핵심인 어린이 키 크기 스트레칭, 영양교육, 구강보건교육을 통해 어린이 건강관리에 중점을 두고 또 하나는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역시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미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재미있는 인형극을 통해 올바른 식습관 및 식사예절을 통해 어린이 비만과 성인병 예방에 힘쓰는 한편, 구강검사 및 구강보건교육을 통해 충치의 원인과 예방법을 가르치고, 올바른 칫솔질을 통해 어린이 구강건강에 알려주고 있다.

여기에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인지기능 및 운동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발 각질로 인한 불편해소와 발 맛사지를 통해 혈액순환장애 해소 등 노년기 우울증 예방에 힘을 기울이고 있어 보건소가 친근한 보건소로 변화를 주고 있다.

오익호 기자

꿈이 ★ 이루어 지는 도시, 희망이 넘쳐나는 도시



REAL ESTATE PROPERTIES

강남 테헤란로 빌딩 매매

- ▶ 강남 역삼역 인근, 테헤란로변
- ▶ 대지 190평 / 연건평 1,670평
- ▶ 지하 4층 / 지상 10층
- ▶ 임대수익 22억 / 월 1억 1천만 / 월
- ▶ 대가 295억 / 수익률 5%
- 011-9548-2622

강남 역삼동 원룸주택 매매

- ▶ 강남 역삼동 선릉역 도로 10분
- ▶ 대지 80평 / 연건평 200평
- ▶ 지상 1층 / 지상 5층
- ▶ 임대수익 1억 2천만 / 월 1,700만
- ▶ 대가 25억 / 수익률 8.57%
- 011-413-5795

용인 고기동 전원주택지 급매

- ▶ 용인 고기동 내원지주지 인근
- ▶ 대지 220평 / 보전녹지 / 대지
- ▶ 낙성지주지 잔여 조망 가능
- ▶ 도시자연공원 조성중, 개발호지
- ▶ 대가 9억 6천만 / 평당 430만원
- 011-9548-2622

강남역 쌍용플래티늄 분양권

- ▶ 강남역 쌍용플래티늄 주상복합
- ▶ 아파트 33, 43, 45평형 168세대
- ▶ 오피스빌 19~45평형 112세대
- ▶ 강남역 도로 3분, 임대수익 풍부
- ▶ 대가 2~9억 / 대 (문의 요청)
- 011-413-5795

☎ 판교 등 아파트 청약 상담 환영 !!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방안 상담 및 개발 !! ☎

상가/빌딩

강남 테헤란로 빌딩 매매

- ▶ 강남 테헤란로 역삼역 도로 5분
- ▶ 대지 175평 / 연건평 1,500평
- ▶ 지하 2층 / 지상 2층
- ▶ 임대수익 : 18억 / 월 1억 1천만
- ▶ 대가 : 205억 / 수익률 7.06%
- 011-413-5795

강남 신사동 빌딩 매매

- ▶ 강남 신사동 신사역 도로 5분
- ▶ 대지 180평 / 연건평 700평
- ▶ 지하층 / 지상층
- ▶ 임대수익 : 5억 / 월 3천 5백만
- ▶ 대가 : 100억 / 수익률 4.3%
- 011-9548-2622

강남 청담역 사옥부지

- ▶ 강남 삼성동 청담역 도로 3분
- ▶ 대지 450평 / 연건평 120평
- ▶ 지하층 / 지상 2층
- ▶ 3중압박주차역 / 대로변
- ▶ 대가 : 195억 (4,300만원/평)
- 011-413-5795

영등포 신길동 빌딩 매매

- ▶ 영등포 신길동 보라해역 인근
- ▶ 대지 240평 / 연건평 1,000평
- ▶ 3중주차역 / 40m 대로변
- ▶ 청담도 및 보라해역 앞
- ▶ 대가 : 65억 / 수익률 7.0%
- 011-413-5795

분당 서현역 빌딩 매매

- ▶ 분당 서현역세권
- ▶ 대지 190평 / 연건평 1,500평
- ▶ 지하 3층 / 지상 8층
- ▶ 임대수익 : 18억 / 월 6,000천만
- ▶ 대가 : 120억 / 수익률 6.9%
- 011-413-5795

분당 아담동 빌딩 매매

- ▶ 분당 아담동 도로 5분거리
- ▶ 대지 158평 / 연건평 722평
- ▶ 지하층 / 지상 8층
- ▶ 임대수익 : 4.5억 / 월 2천 8백만
- ▶ 대가 : 55억 / 수익률 8.2%
- 011-9548-2622

성남 성남동 빌딩 매매

- ▶ 성남 중원구 성남동 도로변
- ▶ 대지 110평 / 연건평 1,000평
- ▶ 신축건물로 현직 임대중
- ▶ 사옥이나 임대수익용으로 좋음
- ▶ 대가 : 85억원
- 011-413-5795

수원시 인계동 건물 매매

- ▶ 수원시 인계동 수원시청 이전
- ▶ 대지 190평 / 연건평 800평
- ▶ 2개층 모빌 혁명 및 임대 가능
- ▶ 임대수익 : 2억 / 월 1,400만원
- ▶ 대가 35억 (중차 2억 1천)
- 011-413-5795

울산시 삼산동 건물 매매

- ▶ 울산시 남구 삼산동 대로변
- ▶ 대지 499평 / 연건평 1,800평
- ▶ 원산지 울산 1호 2천여 부주
- ▶ 임대수익 : 18억 / 월 3,500만원
- ▶ 대가 70억 / 수익률 7.8%
- 011-9548-2622

정선군 서북읍 호텔 매매

- ▶ 강원도 정선군 서북역세권
- ▶ 대지 175평 / 연면적 1,200평
- ▶ 강원랜드, 골프장, 스키장 인근
- ▶ 최근 리모델링 완료
- ▶ 대가 : 60억원
- 011-413-5795

분당 서현역 모텔 매매

- ▶ 분당 서현역 로데오전역 5층
- ▶ 분양평수 : 500평(전용 300평)
- ▶ 임대수익 : 10억 / 월 3천 5백만
- ▶ 38개실(호텔 48개), 임대 500만
- ▶ 대가 83억 / 수익률 8.0%
- 011-413-5795

분당 서현역 상가 매매

- ▶ 분당 서현역 로데오전역 1층
- ▶ 분양평수 : 118평(전용 59평)
- ▶ 임대수익 : 3억 / 월 1,350만
- ▶ 이매추방형, 최고상권/인정성
- ▶ 대가 47억 (평당 4,000만원)
- 011-413-5795

분당 서현역 상가 매매

- ▶ 분당 서현역 로데오전역 1층
- ▶ 분양평수 : 119평(전용 5.5평)
- ▶ 임대수익 : 3천만 / 월 130만
- ▶ 테이크아웃 대상으로 인건비
- ▶ 대가 5억 (평당 5,000만원)
- 011-413-5795

분당 서현역 상가 매매

- ▶ 분당 서현역 로데오전역 3층
- ▶ 분양평수 : 80평(전용 42평)
- ▶ 임대수익 : 3천만/월 320만
- ▶ 유동인구 분당 최고 자리 위치
- ▶ 대가 8억 (평당 1,000만원)
- 011-413-5795

분당 아담동 상가 매매

- ▶ 분당 아담동 단지내상가
- ▶ 분양평수 : 120평(전용 100평)
- ▶ 임대수익 : 4,100만 / 월 210만
- ▶ 투자용으로 수익률 높음
- ▶ 대가 4억 (수익률 7.01%)
- 019-384-3621

분당 아담동 상가 매매

- ▶ 분당 아담동 대로변 2층
- ▶ 분양평수 : 43평(전용 27평)
- ▶ 전 건물주 미용실 직영중
- ▶ 미용실 하임은 강력 추천
- ▶ 대가 3억(미용실 시설비 포함)
- 019-384-3621

강남역 여자골목 상가임대

- ▶ 강남 서초동 강남역 여자골목
- ▶ 임대평수 : 60평(전용 48평)
- ▶ 음식점, 호텔, 주점 등 다양
- ▶ 금강제 하임으로 고기집골목
- ▶ 임대 : 1억 / 월 1,000만 / 한 4억
- 011-413-5795

분당 서현역 상가 임대

- ▶ 분당 서현역 로데오거리 1층
- ▶ 임대평수 : 14평(전용 7평)
- ▶ 분석 및 운영전략 등 추천
- ▶ 이매추방형, 최고상권 / 인정성
- ▶ 임대 : 5천만 / 월 250만 / 한 2억
- 011-413-5795

분당 아담동 상가 임대

- ▶ 분당 아담동 9골목내 1층
- ▶ 임대평수 : 35평(전용 30평)
- ▶ 전 근면이제로 영업중
- ▶ 초보자 기술전수 가능
- ▶ 임대 : 2천만 / 월 30만 / 한 4천
- 019-384-3621

강남, 분당 빌딩/상가 전문

- ▶ 서울 강남 및 분당 전지역
- ▶ 빌딩 매매 및 임대 다양 확보
- ▶ 상가 매매 및 임대 다양 확보
- ▶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 ▶ 자세한 상담해 드립니다.
- 011-413-5795

토 지

용인 이동을전/전원주택지

- ▶ 용인 이동면 천리 은화실CC
- ▶ 320평 / 관리지역 / 담
- ▶ 전원주택지, 기존 등
- ▶ 인근 아파트 단지, 골프장 인근
- ▶ 대가 : 2억 5천 (평당 80만)
- 011-9548-2622

광주 목동/전원주택지

- ▶ 광주시 목동 강남300CC 인근
- ▶ 1,500평 / 관리지역 / 일야
- ▶ 분당, 판교 10분, 골프장 인근
- ▶ 주변 전원주택단지 형성
- ▶ 대가 : 5억 2,500만원(평당 35만)
- 011-9548-2622

여주 능서면 / 물류창고지

- ▶ 여주군 능서면 양거리 이천IC
- ▶ 10,000평 / 관리지역 / 담
- ▶ 울창하고 최적, 3만 도로변
- ▶ 성남~영호철 도로 이천IC 인근
- ▶ 대가 : 18억원 (평당 18만)
- 011-9548-2622

이천 신둔면 / 전원주택지

- ▶ 이천시 신둔면 여경지 인근
- ▶ 2,000평 / 관리지역 / 일야
- ▶ 전원주택지 및 주말농장 추천
- ▶ 성남~여주간철도 선로역 인근
- ▶ 대가 : 10억원 (평당 50만)
- 011-9548-2622

이천 신둔면 / 전원주택지

- ▶ 이천시 신둔면 여경지 인근
- ▶ 197~422평 / 관리지역 / 대지
- ▶ 전원주택단지로 평소 다양
- ▶ 생활편의시설 완벽, 도시가스
- ▶ 대가 : 9억 2천만원
- 011-413-5795

화성 동탄면 / 전원주택지

- ▶ 화성시 동탄면 중리
- ▶ 2,100평 / 관리지역 / 대지 전
- ▶ 전원주택, 울유창고, 근교성
- ▶ 동탄신도시 인근, 도로변
- ▶ 대가 : 평당 200만
- 011-413-5795

서양성 IC / 물류창고지

- ▶ 안성시 원곡면 서양성IC 인근
- ▶ 55,000평 / 관리지역 / 일야
- ▶ 울유창고, 최적 조건 (내화)
- ▶ 사들일만, 보합 대략 가능
- ▶ 대가 : 평당 40만원
- 011-413-5795

원주 흥연면 / 공장부지

- ▶ 원주시 흥연면 대만리
- ▶ 10,700평 / 관리지역 / 공장-임
- ▶ 공장, 전원주택지, 수완칠 등
- ▶ 공장시설 완벽, 타용도 가능
- ▶ 대가 : 20억원 (평당 18만)
- 011-413-5795

아산시 영인면 / 토취장

- ▶ 충남 아산시 영인면 성내리
- ▶ 274,000평 / 농림지역 / 일야
- ▶ 평형, 평창신도시 인근
- ▶ 토취장 또는 투자용으로 좋음
- ▶ 대가 : 110억원 (평당 4.5만)
- 011-9548-2622

전국 토지 상담 환영

- ▶ 서울 및 수도권 토지매매 전문
- ▶ 수도권 토지매매 다양 확보
- ▶ 현지 현장 및 개발 컨설팅
- ▶ 전국 어디든지 전화주세요~!!
- ▶ 양해를 최고의 모시겠습니다.
- 011-9548-2622

아파트 오피스텔

강남 도곡동 푸르지오

- ▶ 강남 도곡동 푸르지오 주상복합
- ▶ 102동 12층 80평형
- ▶ 양차의 도로 3분, 강남역 10분
- ▶ 삼성서울 원광시 입주수용부
- ▶ 대가 : 11억 7천만원 (분양가)
- 011-413-5795

강남역 SK 허브젠

- ▶ 강남역 SK허브젠 주상복합
- ▶ 3층 28평형
- ▶ 강남역 도로 5분, 교통 편리
- ▶ 삼성서울 원광시 입주수용부
- ▶ 대가 : 3억 9천만원(분양가이하)
- 011-413-5795

강남역 한스빌 아파트

- ▶ 강남역 한스빌아파트
- ▶ 2층 17평형(원룸형)
- ▶ 강남역 도로 10분, 교통 편리
- ▶ 강남에서 제일 저렴한 아파트
- ▶ 대가 : 1억 2천만원
- 011-413-5795

수내동 파크리온 아파트

- ▶ 분당 수내동 파크리온 대입
- ▶ 107동 38평형 / 방 3개
- ▶ 에어컨, 정수, 커튼식, 남서향
- ▶ 판교 입주시 투자기회 상승
- ▶ 대가 : 9억 2천만원
- 011-413-5795

이매중 이매동 한신아파트

- ▶ 분당 아담동 이매동 한신
- ▶ 210동 20평형
- ▶ 정상, 커튼식, 남동향
- ▶ 판교 입주시 투자기회 상승
- ▶ 대가 : 2억 5천만원
- 019-384-3621

아담동 팀마을 백산아파트

- ▶ 분당 아담동 팀마을 백산
- ▶ 810동 27평형
- ▶ 서양성(7,000만), 커튼식
- ▶ 판교 입주시 투자기회 상승
- ▶ 대가 : 4억 3천만원
- 019-384-3621

아담동 팀마을 주공아파트

- ▶ 분당 아담동 팀마을 주공8단지
- ▶ 807동 17평형
- ▶ 정상, 복도식, 남향
- ▶ 판교 입주시 투자기회 상승
- ▶ 대가 : 1억 7천만원
- 019-384-3621

아담동 목관마을 빌라

- ▶ 분당 아담동 팀마을 주공8단지
- ▶ 807동 17평형
- ▶ 정상, 복도식, 남향
- ▶ 판교 입주시 투자기회 상승
- ▶ 대가 : 1억 7천만원
- 019-384-3621

아담동 목관마을 빌라

- ▶ 분당 아담동 목관마을 빌라단지
- ▶ 108 38평형 (방3, 에어컨)
- ▶ 울림선 완비된 깨끗한 빌라
- ▶ 판교 입주시 투자기회 상승
- ▶ 대가 : 2억 5천만원
- 019-384-3621

단독/상가 다가구주택

강남역 강남역세권

- ▶ 강남 역삼역 강남역세권
- ▶ 대지 83평 / 연건평 130평
- ▶ 지하층 / 지상층, 주인거주
- ▶ 임대수익 : 2억 / 월 300만
- ▶ 대가 : 12억 6천만원
- 011-413-5795

강남역 상가주택

- ▶ 강남 역삼역 강남역세권
- ▶ 대지 75평 / 연건평 150평
- ▶ 지하층 / 지상층, 주인거주
- ▶ 임대수익 : 1억 / 월 500만
- ▶ 대가 : 18억 8천만원
- 011-413-5795

강릉구창역 상가주택

- ▶ 강릉구 창내동 강릉구창역세권
- ▶ 대지 70평 / 연건평 150평
- ▶ 지하층 / 지상층, 주인거주
- ▶ 임대수익 5천만 / 월 520만
- ▶ 대가 : 13억원
- 011-413-5795

아담동 상가주택

- ▶ 분당 아담동 9골목
- ▶ 대지 75평 / 연건평 132평
- ▶ 지하층 / 지상층, 옥탑
- ▶ 임대수익 : 1억 2천만 / 월 285만
- ▶ 대가 : 8억원 (수익률 4.7%)
- 019-384-3621

아담동 다가구주택

- ▶ 분당 아담동 9골목
- ▶ 대지 55평 / 연건평 108평
- ▶ 지하층 / 지상층, 옥탑
- ▶ 임대수익 : 29,300만 / 월 120만
- ▶ 대가 : 8억 5천만
- 019-384-3621

강원도 영월 / 사찰 매매

- ▶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법출리
- ▶ 대지 1,350평 / 연건평 330평
- ▶ 단층건물 5층, 2중옥탑 2층
- ▶ 기도도량, 수련장으로 최적
- ▶ 대가 : 13억원
- 011-9548-2622

강원도 삼척 / 펜션 매매

- ▶ 강원도 삼척시 원곡읍 일월리
- ▶ 대지 1,500평 / 연건평 155평
- ▶ 해수욕장 등 주변 관광지 산지
- ▶ 연매출 8천만원(정부부공제)
- ▶ 대가 : 8억 5천만원
- 011-9548-2622

충남 안면도 / 펜션 매매

- ▶ 태안 면면도 꽃지해수욕장
- ▶ 대지 322평 / 연건평 140평
- ▶ 해안도로, 조망권 최고
- ▶ 연수익 : 2억원(정부공제)
- ▶ 대가 : 14억원
- 011-413-5795

☎ 고객부동산의 미래 가치를 창조해 드립니다. 제반 부동산 관련 상담 환영!!

데스크칼럼

이대엽 시장의 대시민 약속은 희망사항인가?

지난 5.31지방 선거의 양금이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불씨로 되살아 나고 있다. 민선 4기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대엽 시장이 최근 지방선거에서 강력한 경쟁자중의 한 사람이었던 열린우리당 이재명 변호사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자 이재명 변호사도 기다렸다는 듯이 기자회견 등을 갖고 21건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대엽 시장을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사태는 본격화 되고 있는 판교 신도시 개발과 도촌동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성남시의 새로운 지도가 그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그 사건의 배후 여부를 떠나 역동적 발전을 염원하는 성남 100만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구시대적 정치행태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의형적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사회에서 선거는 사회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견제장치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통상 '선거는 국민적 축제'라는 진부한 말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선거가 끝난 후에는 후보자와 당선자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고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선거에 나선 공인으로서의 자세이기도 하다.

선거라는 특수한 공간에서는 어떤 사안이나 인물에 대해 찬반의사를 표시하

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기에 선거라는 공간이 존재하고 선거는 치열하게 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하는 선거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끝난후 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자나 측근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처럼 선거에 진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 감정적 대응이나 보복적 대응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대엽 시장도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인정하고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대엽 시장은 지난 7월 1일 본보가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선거 기간 각 후보자들 의견이 달라 반목과 근거없는 음해로 논란도 있었다"면서 "또한 좋아하는 후보를 선출하고자 과열 분위기가 조성되어 시민들간에 분열이 있었을 잘 알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이 시장은 "이 또한 우리 성남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일"이라면서 "이제 흠어진 민심을 오직 성남의 발전을 위하여 시민의 역량을 한 곳으로 집결할 수 있도록 시민화합의 장 마련에 노력할 것"이라고 시민화합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표방했다.

그러나 이유야 어찌든 선거가 끝나나

마자 상대 후보를 선거법위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소하는 행위는 공인으로서의 대시민 약속 여부를 떠나 100만 시민의 화합에 앞장서야 할 시장으로서의 처신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최근 지역사회에서는 최초의 민선 재선시장이라는 명예를 얻은 이대엽 시장이 당한 행정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돌출된 것이어서 민선4기가 또다시 합리적 리더십이 아닌 당한 행정으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주민들이 풀리지 않는 민원해결을 위해 이대엽 시장을 면담하기 위해 시청을 찾은 때마다 굳게 닫힌 철문과 이제는 공무원이 아닌 외부 용역업체 직원들이 민원인들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물론 억지성 민원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관선이 아니라 지방자치라는 정신에 비추어 볼때 성남시의 대응은 구시대적이라는 비판을 면치 어렵다.

100만 성남시민은 이제는 갈등과 진통이 아니라 화합과 새로운 비전을 그리는 성남자치공화국의 모습을 갈망하고 있다.

이 가운데 100만 수장의 대표인 이대엽 시장이 있다. 지역사회 발전과 화합을 위해 이대엽 시장의 결단을 기대한다.

모동의 편집장

NEWS DAY

www.newsday.or.kr

회장 | 김중근
부회장 | 정희만
총무이사 | 김현중
발행·편집인 | 김광현
편집장 | 오동희
취재기자 | 오익호, 이나래
등록일 | 2005년 9월 30일
등록번호 | 경기 400907
등록번호 |
발행처 | 주식회사 디지털 성남일보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347
영성빌딩 5층
구로·광고신청 문의 | 031/721-9922
팩스 | 031/721-992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뉴스데이(newsday.or.kr)는 1위 디지털 성남일보가 발행하는 오피니언 신문입니다. 성남·광주지역의 실시간 뉴스는 검색에서 '성남일보'를 쳐주세요.

성남일보와 함께 할 가족을 모십니다

제2의 도약을 선언한 성남일보/뉴스데이에서
하반기 채용계획에 의거 가족과 같이 함께 일할 분을 모십니다.

모집부문

부서	모집인원	자격
편집국	취재기자 0명	지역신문 경력자 우대
광고국	광고영업 0명	광고영업 경력자

제출서류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자기소개서 각 1통
취재기자는 본인이 작성한 포트폴리오 제출

제출처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3417 영성빌딩 5층
(주) 디지털 성남일보 총무팀
TEL 031-758-8668 FAX 031-721-9921 E-mail webmaster@snlbo.co.kr

제출방법

팩스 및 이메일접수(서류전형후 면접일 통보)

접수 마감

2006년 9월 30일(토)당일 접수분까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고객의 안전과 소중한재산을 PROSTAR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수퍼마켓, 편의점, 귀금속점포, 대형상가등
공장, 아파트, 주택, 창고, 건설자재 하차장등
병원, 유아방, 유치원, 학원등 기타 보안업체등**

원격감시 시스템



- 인터넷을 통하여 전국 어디서나 현장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언제, 어디서나 원격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 개인컴퓨터로 인터넷을 통한 24시간 검색이 가능합니다.



www.teleserver.net 에 접속하여 원격지에서 현장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CCTV 카메라



프로스타 제품소개



- EASYCOP-400N MJPEG Codec**
- 화질이 우수한 MPEG 코덱을 사용 -
- 깨끗한 영상을 제공합니다.
- 돔카메라 및 적외선카메라 총 4개까지 지원
- PROCOP-420 MPEG4 Codec**
- 압축율이 뛰어난 MPEG4 방식으로 저장공간을 극대화한 제품입니다.
- 돔카메라 및 적외선카메라 총 4개까지 지원
- PHUCOP-S2U162U MPEG4 Codec**
- MPEG4 방식으로 9채널, 16채널 DVR로 -
- 마다트 및 대형상가등에 적합 합니다.
- 돔카메라 및 적외선카메라 총 16개까지 지원

PROSTAR P/S 판매원 : 한아름산업주식회사
문의전화 : 02-302-219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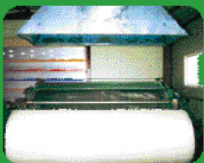
(상표등록 : 제 0059439호)



솜 · Zip · 공 · 장

※ 공 장 방 문 환 영 ※

먼지, 냄새제거, 살균소독 기능을 갖춘 **최신형 기계**로 두꺼운 목화, 명주, 양모, 실크솜을 **고객의 희망대로 가볍게 APT형 이불, 요 2m 넓이 통판**장으로 늘리지 않고 만들기 때문에 **솜질이 확실히 다릅니다.**



▲ 위에 있는 기계가 늘리지 않고 2~3cm 두께 정도로 솜되는 기계입니다.



▲ 위 쪽에 설치된 것이 냄새 먼지를 제거하는 기계입니다.

한아름 솜Zip공장에서는
고객님의 솜Zip작업을 하는 **1, 2, 3, 4, 5차** 모든 공정을 계약된 고객님께서
인터넷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확인하실 수 있게끔 개방을 해 놓았습니다.
고객님께서 솜Zip공장을 잘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 고객님의 소중한 솜 한번 바뀌면 찾을 수 없습니다.



양단이불



침대카바



정식모로

홈패션은 **방랑방적면**으로 고객께서 원하시는 디자인과 저희 카다록대로 이불, 요, 양단, 보로, 침대카바 등 **손누비 맞춤 전문업체**입니다.

“ **방송3사 뉴스에 고객님의 소중한 솜이 바뀐다고 보도가되었는데 알고 계시는 것은 아니시겠죠!** ”

서비스를통해
동독에 02553322로 연락 하시면 4~5명까지
동독을 10명까지도 동독을
10명까지도 동독을

샤워노래, 김치(김치), 김치(김치)
샤워노래, 김치(김치), 김치(김치)
샤워노래, 김치(김치), 김치(김치)

관악출판부

정액 요금은 낮고 한꺼번에 서비스비용이
동독을 동독을 동독을

책 제목

한아름 침구

www.somzip.com / 한글주소 : 솜Zip공장

무료 전화
080-264-4767
(신호가 놓을경우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 본 제품은 의뢰장독 되어 있으므로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www.z-in.co.kr

“미롭고 싶다.. 이런 창가”



그녀 마음에 들기위해 디자인도 컬러도 자꾸자꾸 좋아합니다.
미롭고 싶은 창이 되어갑니다. 여자의 마음은 특별한 창에만 열리니까요.

* Z:IN HAUT는 LG화학의 창호 통합 브랜드입니다.

창에 대한 긴: 생각 **z:in HAUT**